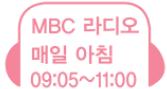


여성스 ICB

양희은·서경석입니다

4월
2023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범어동지점 거래고객
한울푸드 박규섭·최윤지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 거래고객
도영푸드피아 김현식 대표



IBK기업은행

이름만보면
혜택을알수있는
I.B.K카드

거나

나에게 딱 맞춘 카드

BK

거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B카드

최적화된 B카드

남다른 삶을 위한 프리미엄
카드

contents 2023년 4월호



04

-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떡볶이도 한식이다



72

- 이달의 편지
'배 씨와 베 씨' 외



76

-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한울푸드 박규섭·최윤지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도영푸드피아 김현식 대표

- 81 코너 속 편지
'전차상륙함의 추억' 외

-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나이들 수 있다면 좋겠다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울 엄마가 달라졌어요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3년 4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선홍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증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릉 월간지(비매풀)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떡볶이도 한식이다

서울 광진구 '눈물떡볶이&빙수'
백경택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여성시대 앞으로 딱 일 년만에 편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위암 수술을 한 백경택입니다. 여성시대를 통해 제 사연이 나가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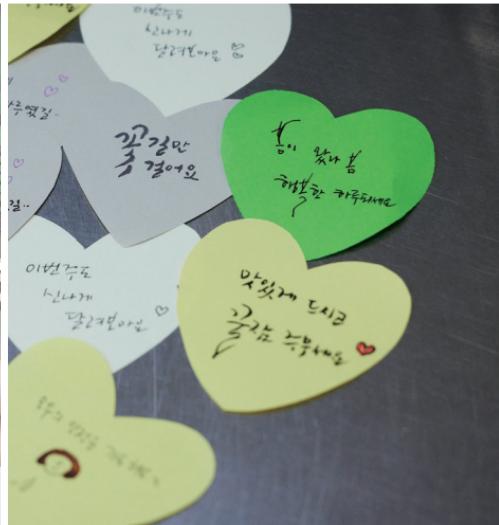
여성시대 애청자 백경택 씨는 건강한 모습의 사진과 함께 근황을 알려왔다.

백경택 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배달전문가게 '눈물떡볶이&빙수'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 대한민국 50대 자영업자로의 삶이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에 병이 더해졌다. 그것도 전이가 아주 빠른 암.

“처음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요. 우선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나더군요. 아이들 둘 다 공부 중인데 뒷바라지는 어쩌지. 고생 많은 아내 호강도 시켜 줘야 하고,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도 돌봐드려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싶었죠.”

건강검진으로 위암을 발견하고 급하게 수술하기까지 파란만장한





날들이 지나갔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은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나 걷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걸었어요.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위를 70% 절제했으니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도 없고요. 걷는 운동을 통해 식욕을 돌아오게 하고 소화도 잘 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먹고 걷고 뛰기를 반복했다. 여성시대와의 약속도 있었지만, 단골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수술하고 최소한 두 달은 가게를 쉬어야 하기에 배달앱에 이렇게 적어두었었다.

<아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기 위해 초기에는 18시간, 지금은 15시간 일하며 8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만들어 내기 위해 2년을 고생하였고, 오픈 후 자리를 잡으려고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제 위장에 암이 있다고 하네요. 저 수술 잘 받고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영업 시간이 들쭉날쭉하겠지만 꼭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려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 공지가 올라가자 오랜 단골들이 하나둘 가게로 찾아왔다.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수술 잘 받고 오라는 분, 케이크를 한 손에 들고 와서 약속 꼭 지키라 하는 분, 전화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백경택 씨 마음에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다. 그동안 떡볶이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정을 주고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정을 다시 나누기 위해 수술 40일 만에 가게에 돌아왔다. 앱으로 주문하는 배달전문가게는 앱상에서 사라지면 고객들의 머릿속에서도 금방 지워진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어찌 랴. 더 노력하고 애쓰는 수밖에 없다. 쉽게 변하는 고객들을 변함없는 맛으로 사로잡아야 한다.

상호인 눈물떡볶이는 ‘건강하게 매운 떡볶이’를 뜻하기도 하고 ‘눈물 나게 맛있는 떡볶이’를 말하기도 한다.

“저는 떡볶이도 한식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캡사이신을 쓰지 않고 고춧가루와 표고버섯, 가쓰오부시, 대파 등을 잔뜩 넣어 맛을 낸다. 8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다 보니 단골손님들의 취향도 저절로 익혔다.

‘아~ 이 집은 떡은 덜 넣고 어묵 많이, 오~ 요 집은 아이가 있는 집이니 이따 배달 갈 때 사탕을 챙겨야겠네…’

눈물떡볶이&빙수에는 고객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가 추가된다. 정성스럽게 적은 아내 엄현정 씨의 손글씨가 따라간다.



<맛있게 드시고 끝잠 주무세요> <이번 주도 신나게 달려보아요>
<모두에게 별일 없는 하루였길…> <힘내라 나의 오늘♡>

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다. 유명하다는 캘리그라퍼가 울고 갈 정도로 글씨가 어여쁘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어 식단에도 가게 일에도 부쩍 더 신경 쓰고 있다. 요즘은 오후 2시에 가게 문을 열고 새벽 2시에 닫는다.

“예전에는 오전 11시에 열어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잠을 하루 3~4시간 정도 자고요. 하루도 쉬어 본 날이 없어요.”

가장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30년 전 대학생일 때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섰다. 어머니 혼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새벽 경매를 위해 나서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따라나선 것이 시작이었다. 새벽 3~4시에 생선 경매를 받아 도매상에게 넘기는 일을 하고 학교에 갔다. 백경택 씨 세 살, 어머니 서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기억도 추억도 남기지 않은 아버지의 자리를 묵묵히 채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교회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하고 딸과 아들을 낳았다. 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다 갈빗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적한 교외에 자리 잡은 갈빗집은 맛도 좋고 환경도 좋다 소문이 나서 제법 장사가 잘됐다. 그러나 그 근처에 축사가 생기는 바람에 냄새와 환경 문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갈빗집을 그만두고 한동안 부부는 시름에 젖어 있었다. 그러다가 배달전문가게를 생각하게 됐다.

뭐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남편은 맛있다고 소문난 전국의 떡볶이집을 찾아다녔다. 2년여의 발품 끝에 가게 문을 열 수 있었다.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가격이 처음 시작했을 때 가격이랑 같아요. 식재료값이 모두 올랐지만 재료도 가격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고객들과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앞으로 맛도 잘 지켜내겠습니다.”

눈물 나게 고마운 고객을 위해 눈물 나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그의 손에 정성이 실린다.

〈사탕보다 달콤한 내 연인의 말〉

[5052] “애기야 같이 가자.” 제 남친은 평소엔 무뚝뚝한데 꼭 큰 마트나 쇼핑 나가면 큰 목소리로 장난칩니다. 제가 막 뭐라고는 하지만 오글거리 면서도 살짝 기분 좋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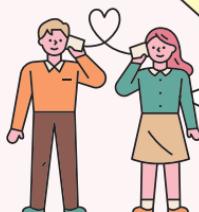


[3267]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하는 남편의 말이요. 그 말이 왜 달콤하냐면 그 말을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거든요. 추울까 봐 옷 여미주고 생선 가시 다 빌라주고 고기 탄 거 다 잘라주고요. 저 사랑받고 있는 거 맞죠?

[2734] “너는 나의 풍선껌이야. 크게 부풀려서 같이 우주로 여행 가고 싶어.” 우리 남편이 연애 시절 했던 말인데요. 저는 요즘 남편을 풍선껌처럼 질 경질겅 씹고 싶어요.

[5908] “닭다리는 자기 먹어~.” 달달한 사랑 멘트보다 이 말이 절 더 녹여요. 우리 남편 닭다리 엄청나게 좋아하는데도 양보하는 거 보면 이거 찐사랑 맞죠.

[3288] “얼마 필요해?” 제 귀에 대고 말하면 “신사임당 10장.” 이리 달달 할 수 없어요.



[장석호] 집사람이 “날마다 당신이 더 좋아져~”라고 가끔 말해주는데 들어도 들어도 기분 좋아요♡



- | | |
|------------------|------------------|
| 12 배 씨와 베 씨 | 41 아픈 손가락 |
| 15 덧발이 바꾼 인생 | 44 제 직업은 |
| 19 낚인 사람들 | 46 다음 소희 |
| 22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 48 이해할 수 없는 엄마 |
| 26 인생의 선물 | 51 고등공민학교 시절 친구들 |
| 30 방 | 55 세 번째 인생 |
| 35 슬기로운 병실 생활 | 59 간헐적 농부와 고들빼기 |
| 38 다시 만난 아궁이 | |



Letter 01

배 씨와 베 씨

엄영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이 담임선생님께 대뜸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 우리 아빠랑 엄마는 둘 다 배 씨를 좋아해요.”

“응? 배 씨를 좋아한다고? 누굴 좋아하는데?”

“아빠는 배호를 좋아하고 엄마는 베토벤을 좋아해요.”

“맞네! 둘 다 배 씨 맞네.”

아들의 말로 인해 우리 집은 한동안 ‘배(베) 씨를 좋아하는 집안’으로 불렸다. 나는 베토벤, 남편은 배호.

그런데 언제부터 이랬던가? 요즘 들어 ‘트롯’ 경연 대회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어찌 그리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지, 고상함을 추구하던 내가 트로트에 빠지다니 참 희한한 일.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오로지 클래식이었다. 예전에 다니던 보건진료소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서 출근하자마자 가운을 걸치고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트는 것이 가능했다. 이 곡은 근무 환경에 딱 맞는 음악이었다. 창을 열면 콩밭 사이사이로 보이는 감나무와 몇 벌짝만 때면 흐르는 냇물과 먼 산에서 들려오는 빼꾸기 소리는 전원교향곡의 또 다른 배경 음악이 되었다.

베토벤은 나의 우상이었다. 특히 교향곡이 좋았다. 볼륨을 높이고 귀를 기울이면 악기 하나하나의 세밀한 소리가 귀를 파고들어 마음을 울렸다. 3번 영웅교향곡은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얻는 음악이다. 함부로 듣지 않는다. 좋아하는 간식을 아껴먹듯 아껴두었다 듣는 곡이다. 송년 시즌에는 9번 합창교향곡이 제격. 신의 영역을 침범한 듯한

이 곡은 내가 꼽은 최고의 교향곡이다.

반면, 남편은 가수 배호를 좋아한다. 이 얘길 들었을 땐 정말이지 세대 차이를 느꼈다. 나에게 배호는 기억 넘어 아득한 곳에 있는 가수였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 덕에 귀동냥으로 그의 노래를 듣는다. 이심 전심이랄까, 나도 모르게 가수 배호를 좋아하게 되었다. 시쳇말로 그의 '동굴 보이스'에 빠져든 거다. 남편 역시 베토벤은 물론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둔다.

올해는 남편과 함께 영화관에서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현장에서 공연을 보면 좋겠지만, 음향이 좋은 극장에서 화면으로 보는 신년 음악회도 괜찮았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 슈트라우스 중심으로 구성된 신년 음악회 곡들은 그냥 듣기에는 꽤 낯설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중하는 것 같았다. 앙코르곡으로 라데츠키 행진곡이 나올 땐 신나서 박수도 따라 쳤다. 재미없으면 꾸벅 꾸벅 졸고 하품이나 할 터인데 점점 그의 취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아니겠나.

나도 트로트 경연 대회를 보고 한 가수의 노래에 끌렸다. 가수 김호중이 재해석한 설운도의 <다시 한번만>.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고 내 가슴도 애절함으로 물들었다. 심금을 이리도 흔들어 놓는데 클래식 이면 어떻고 뽕짝이면 어떠리. 배 씨면 어떻고 베 씨면 어떠하리. 취향이 비슷해지니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의 소재가 다양해진 것은 확실하다.

된비알 같은 인생. 오르막이 끝나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 내리막이 힘들기로서니 오르막만큼이야 하겠는가. 취향까지 맞아떨어지면 함께할 남은 날들은 이제 주야장천 봄날 아니겠는가.

Letter 02

텃밭이 바꾼 인생

박명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오 매~ 배추가 겁나게 달아야~.”

“오매~ 시금치는 또 얼마나 맛있는디~.”

이런 말에 행복한 올해 육십이 된 당당하지 못한 당당이입니다. 희
은 님, 경석 님 안녕하시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이라 제가 농사지은 채소를 나눠주고 듣는 소린
디요. 이렇게 맛나게 먹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어째 이라고 행복하다
요. 주는 게 행복한 것은 다 잘 알지라이?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된 거는 참말로 아픈 계기가 있당께요. 그
계기는 33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게 계기가 되어 부렸소.

남편이 주식에 미치고 귀가 얇아서 결혼 첫 달부터 빚 갚으면서 시
작했는디 그때는 암것도 모르고 기냥 살았지라. 처음에는 1~2천으로
시작하더니 7천, 8천, 억 단위로 깡통계좌에 카드 돌려막기로 빚을 막

아감서 했는갑니다. 저는요 깡통계좌가 뭔지도 모르요. 그란디 깡통으로 했다고 합디다.

날마다 싸우고 뒤처리는 내가 해결하고 참말로 힘들었구만이라. 13년 전 부모님께서 주신 땅을 담보로 또 주식을 해서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압류통지까지 왔더라고요.

입대를 며칠 앞둔 아들이 어느 날 소주 한 병을 사 들고 와서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할라는디, 자리 좀 피해주세요” 하기에 안방으로 들어가 귀 기울이며 들어본께.

“아빠, 나 지금 당장 아빠 호적에서 나를 빼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와도 이혼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분명 아빠는 폐인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아빠를 보기도 싫고 호적에서 뺐다고 아빠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아빠 앞에서 죽을라요. 내가 죽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맹세를 하세요. 또다시 주식에 손대면 제가 아빠 앞에서 죽을라니,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랬더니 남편 왈 “다시는 안 할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다시 “이제 아빠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맹세하세요.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세요. 만약 다시 또 주식에 손대면 내가 죽음을 택할 테니 꼭 아빠 앞에서요.”

그렇게 무서운 말로 울면서 애원하는 아들 앞에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자식 목숨 걸고 맹세하더니만 그래도 또 합디다. 그놈의 주식을. 그게 병 중에서도 큰 병이란께요.

3년 전 퇴직을 했는디 퇴직금도 중간에 정산해서 주식에 절반은 써버리고 조금 남은 건 연금으로 돌리자고 그렇게 했는디, 그냥 받아 갖고 와서 그걸 또 코인에 날렸어라. 저는 코인을 하는지도 몰랐는디, 아들이 아빠가 하는 것 같은디 엄마한테 말을 못하겠어서 참다 참다 하

는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고. 이거 참 환장할 일 아니요? 시부모님이 병환에 계셔서 국 끓이고 약오리 만들어서 반찬 해 드리고 오는 길에 그 소릴 듣는데요, 가슴이 벌렁거려서 운전을 어찌하고 왔는지도 몰라라. 집에 와서 “당신 코인 했소? 대답해보시오?” 하니 남편 월 “내가 잘못했응게 내가 나갈라네.”

“그래도 대답은 해보시오. 얼마나 했소?”

“아, 이혼하며 되는디 그만합시다.”

하고 집을 나가서 본가로 가부렀어라.

글을 쓰다 본께 그때 억울한 게 또 생각나서 눈물이 나오. 소리 질러 싸워보고 성질도 내보고 할 것인디, 어이없어 명하고 집 나가는 인간 뒤만 쳐다보고 있었응께 가고 나서 얼마나 분했겠소. 욕도 해줄 것 인디 멱살이라도 잡고 혼들어 줄 것인디, 그런 생각만 했어라.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느닷없이 이혼하고 혼자서 크나큰 집에서 울면서 있는디 우울증도 오고 사는 게 허망하고 죽고 싶어집니다. 그 란디 죽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소. 겁나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어라. 죽지도 못하고 1년 전에 하느님 곁에 계신 엄마한테만 ‘나 좀 데려가 주십사’고 울면서 날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어라.

어느 이른 봄, 친구가 안 되겠다고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한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 시골 마을까지 갔는디 친구네 밭이 비어 있다고 채소라도 심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무심히 듣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본께 죽을 때 죽든지 말든지 채소를 심고 싶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밭에 가봤는디 오매나~ 아직 추운디 새싹들이 방긋방긋 나왔지 뭐요. 그래 이거야. 철 따라 빈 땅이 없이 겁나게도 심어부렀소. 날마다 그것들 크는 게 이뻐서 정성을 들였더니만 농사가 잘됨디다.

참말로 재밌습니다. 고추, 깻잎, 상추, 작두콩, 강낭콩, 호박, 참외, 고구마, 배추, 무, 시금치, 갓… 심을 수 있는 것은 다 심었어라.

제철에 나는 것으로 못생기고 안 좋은 것은 내가 먹고 좋은 것으로 친구, 동생, 언니, 아는 사람들에게 배달해줬지요.

다 나눠주고도 너무 많아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필요하신 분 가져 가세요>라고 적어 붙이고 놔두면 인기짱이여라. 양이 얼만큼씩 이나면요. 상추는 10kg 사과 상자에 겹겹이 이쁘고 가지런하게 한 박스씩, 시금치는 40kg 포대에 가득 담아서 나눠가라고 적어 놓으면 금방 없어져라. 아파트에서는 누가 놔둔지도 모르고 드시겠지요.

어느 날은 5층 동생이 무좀 나눠 갈란디 타이밍을 못 맞춘다고 해서 직접 집 앞에 가져다줬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행복하고 즐거우니 이제 사는 것 같아라. 잘 먹었다고 맛나다고만 해도 즐겁단 말이요. 이렇게 나눠 먹는 재미가 참 말로 살맛 나게 해주세요. 비록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당당하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인자 그 아픔 잊어 불고 즐겁게 살기로 했소.

고맙다는 소리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먹는 사람도 좋고 나는 더 좋고 얼마나 좋아부요.

지금도 꽉 펴진 배추가 추위도 이겨내고 맛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디 또 친구들 가져다줄 생각하면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요.

“오매~ 이 배추는 더 달고 맛나다~”

또 그럴 것이요. 아이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라.

Letter 03

낚인 사람들

이지연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저는 중년의 초보 자영업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낚시가 너무 좋아서 데이트도 취미도 일도 낚시로 하는 부부였어요. 눈만 마주치면 둘이 낚시 얘기로 신이 나서 “어디 갈까” “요즘은 뭐가 잘 잡힌다더라” 하하호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떠들고요. 막 싸우다가도 낚시하기로 했던 날엔 서로 씩씩거리면서도 낚시 장비를 챙겨 들고 차를 탔죠.

그러다 이제 직장생활도 시들하고 정년이 되어가니 뭘 하며 먹고살까 하다가 결국 낚시터를 차렸습니다. 시설과 건물, 고깃값, 해수값, 무엇 하나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걸 끌어 모은 그 야말로 영끌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험난했던 사업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했는데도 시공사를 잘못 만나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오픈일도 연기되고 무너지고 재공사하고 가까스로



오픈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오픈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땐 불이 나서 한 달간 영업을 못 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는데 다행히 취미가 같은 손님들과 소통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덕에 빠르게 낚시터를 재오픈할 수 있었어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지나가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어 오셨다는 분, 회를 먹고 싶어서 오셨다는 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디 멀리 못 가고 사람 많은 곳엔 갈 수 없었던 분위기도 한몫했지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대단한 손님들은 저희 부부의 형편을 아시고 매일같이 오셔서 청소, 정리, 보수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설비하는 분이 전기와 수도를 보수해주시고 우체국 직원분이 우체통을 선물해주시고 인테리어 하는 분은 계단과 부실한 자재 마감을 도와주셨어요. 중장비 하시는 분은 낚시터 앞 텃밭을 일궈주기로 했고요. 그야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순식간에 시공을 마쳤지요. 그리고 재오픈하던 날, 운영하지 못하는 동안 다녀가신 분들이 가게 문에 붙여주고 가신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까지. 아… 무어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저희 부부의 무너지던 순간을 잡아주신 든든한 베풀목이었습니다.

단골손님들과는 이제 누가 손님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화기애애한 가게가 되었어요. 가게 위치가 외진 곳이라 일이 바쁠 땐 배달 시키기도 애매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하는데 그걸 본 손님들이 방문하면서 꽈배기, 빵, 떡, 과일, 반찬, 고기, 피로회복제 등 온갖 간식과 영양제들을 사 오시고 아직 미숙한 인테리어를 위해 낚시터 관련 장식품들도 선물해주세요.

손님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친절하고 친근한 가족 같은 사이, 이게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고, 정성을 다하면 전해지는구나 싶어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받아주신 손님들께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요.

행복한 에너지로 운영되는 공간이 올해도 잘 지속되길 바라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가게를 더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상이 살만해진 초보 중년의 행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낚시로 엮이고 낚인 사람들과 함께요.

Letter 04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유의태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튀르키예 지진 뉴스만 나오면 잔해에 깔린 딸의 손을 잡고 망연자실 앉아있던 주황색 옷 입은 아버지 모습이 겹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규모 7.8의 강진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강력한 충격을 준다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많은 병력을 파견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형제의 나라라는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 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구호대를 편성하여 파견했는데 구조대원들이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보고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국제구조대의 일원으로 중앙구조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큰 지진 현장은 여진이 잣아서 불안정한 건물들의 추가 붕괴 우려가 있고, 그 위험 속에서 건물 내부를 탐색하고 파고들어 구조해야 하



므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내 생명을
거는 구조작업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출동하는 후배들에게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하고 건강하고 무사하
게 돌아와서 만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더니 후배 구조대원은
<대장님, 여기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알
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계로도 감지되고, 문경에서는 지하

수 수위가 올라갔을 정도로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그다음 해에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지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 해야 할까요? 소방청의 지진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면 건물이 흔들리면 인테리어 장식품이나 선반 위의 물건들이 떨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높은 곳에 올려놓은 물건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옮겨 놓아야 합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가족과 대피 장소와 방법을 공유하고 생존에 꼭 필요한 물, 구급약품, 비상식량, 손전등, 라이터, 가벼운 담요나 옷가지 등을 가방에 넣어 보이는 곳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 물품 가방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생존 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일단 베개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가까운 식탁이나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낙하물로부터 몸,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심하면 식탁이나 책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식탁 다리를 꼭 잡아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대부분 1~2분이면 끝납니다. 진동이 끝나면 빨리 주방 가스레인지나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건물이 충격을 받으면 현관문이 휘어져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신속하게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파편에 발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험합니다. 지진이나 화재로 정전되거나 충격을 받으면 작동이 멈추기 때문이죠. 혹시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라면 즉시 전 층 버튼을

모두 눌러 가까운 층 문이 열리면 신속하게 밖으로 나와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간하게 되면 인터폰이나 전화로 119에 신고하는데 층수 누르는 버튼 근처에 적힌 승강기 숫자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숫자는 엘리베이터의 고유 ID라 소방서에서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통신장애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SNS나 문자메신저를 활용하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건물이나 담장을 피해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때는 진열장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물건 바구니를 머리 보호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극장이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출입구 한 곳으로 갑자기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나 바다에서는 급경사지를 피하고 해일 경보가 있을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혹시 운전 중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차도 오른쪽으로 대피하여 긴급 차 출동로를 열어주고 차를 비울 때는 자동차 키를 두고 내려야 합니다. 밖에서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피하고 항상 휴대폰이나 방송으로 지진 정보 속보를 들으면서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 동네 민방위 비상대피소나 우리 건물이 내진설계 건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지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국한 국제구호대 후배는 <최선을 다하고 왔지만 그곳 피해가 너무 심각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하루빨리 복구되어 생활 터전과 가족 친지 동료를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Letter 05

인생의 선물

애청자

실로 오랜만에 목욕탕의 습한 공기와 따끈한 물에 몸을 담그며 눈을 감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오십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중년의 아줌마입니다. 마음의 여유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한시름 놓았더니에는 아직 갈 길이 많은 저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편히 탕 속에 내 한 몸을 담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언제나 내 삶이 되돌리기 없이 빨리 감기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춤 버튼도 없고 오직 재생 버튼만 있는 그런 삶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요.

누군가 그랬죠. 부부의 연은 마치 로또와 같다고. 안 맞아도 그렇게 까지 안 맞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저 역시 전남편의 외도와 무능력과 성격 차이로 10년 전 이혼을 했지요. 그 당시 제 전 재산은 천만 원. 이

마저도 전남편이 몰래 빼돌린 돈을 찾아내니 양심상 거지에게 적선 하듯이 던져 준 돈이었습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바보라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 조언이라는 가면을 쓴 지적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거짓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마음의 안식을 구한 욕심쟁이들이었지요.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기로 한 대가로 받은 귀 하디귀한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저에겐 아이들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아이들과 방 한 칸짜리 월세 보증금도 안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정을 딱히 여긴 지인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인 집 하나를 소개해줘서 경매 집행까지 무보증으로 살게 해주었고 아이들과 저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창 엄마 아빠 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흔한 달걀 반찬 하나 마음껏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은 물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먹고 싶다고 조를 때면 저도 아이들도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병원 간병인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밤에 무서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시도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젊다면 젊은 40대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모조리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는 돈보다 약값이 더 든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콧등으로 들으며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지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비가 오거나 날이 궂으면 온몸이 쑤시고 맞은 것처럼 아파 와서 걸을 수도 없고 통증으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욕탕 뜨끈한탕에 몸을

담그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돈이 아까워 한 달에 한 번 겨우 갈까 말까였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벌어서 어느새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대학만은 보내자고 결심했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효도하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라며 학원 한번 안 다니고 공부해서 늘 내신 1등급의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큰아이 대학 가던 날 학비 걱정하는 아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는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달랑 학생회비 만 원만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성적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학생회비 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아이도 저도 서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못난 부모 만나서 남들처럼 비싼 과외는 고사하고 학원도 못 다녔는데 어떻게 제 뱃속에서 이런 보물이 나왔을까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멋을 부릴지도 모르고 머리는 검은 고무줄 하나로 질끈 묶고 다니는 아이에게 멋을 내라고 말을 하면 “엄마, 난 엄마닮아서 미모가 끝내주거든. 그런데 여기에 화장하고 옷 잘 입어봐. 불안해서 길거리를 못 다녀요.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게 애국이야” 너스레를 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면 거짓말입니다. 10년 동안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일어날 때 앓을 때 아구구~ 소리가 날 정도로 모진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변한 게 있다면 그래도 이혼 당시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독하게 벌어 은행 돈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방이 빨린 전셋집도 구했고 가끔은 아이들과 여유롭게 커피숍에서 맛난 음료도 시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 전 4,500원이 아까

워 못 갔던 목욕탕이 이제는 8,000원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돈이 없어 못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파 찾은 목욕탕에서 노곤노곤 온몸이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근 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거울에 비추면 얼굴 여기저기 기미가 피어 있고 어느새 머리에 흰 눈이 내렸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가 저에게 해준 말을 기억합니다.

“엄마, 꽃은 어디에 피었건 아름답잖아. 파랗던 잎이 지고 시들어도 꽃은 향기로워. 향기로웠던 추억도 아름다워. 꽃이니까. 엄마는 여전히 꽃이야.”

저는 제가 아이들의 베풀목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살아보니 아이들이 저의 베풀목이었던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가야 하는 세월이 많지만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처럼 만약에 누군가 다시 내게 세월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웃으면서 싫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 어떤 세월이라고 해도 저는 싫습니다. 저는 지금의 현실이 만족스럽고 흡족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또 아이들을 위해 뛰어야 하겠지만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세월일 테니까요.

항상 엄마의 힘이 되어주는 내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딱 이렇게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 사랑한다, 내 아가들아.

Letter 06

방

주용덕 |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0 01년 여름, 우리는 방 4개인 집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족한 자금으로 이를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둘째 처남이 교통사고로 갓난아기인 딸과 아내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상대편 운전자가 역주행해서 발생한 사고였다.

처가 식구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3남 2녀인데 아내가 끝에서 두 번째다. 해가 바뀐 2000년 여름에는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노래방 아르바이트 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사고를 당하셨다. 그 학생은 사장 자동차로 안주 사러 가다가 4차선 도로를 건너는 장모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단다. 병원 영안실에서 '무명인'이라고 적힌 시신 보관함을 여는 순간, 자주 입으시던 장모님 원피스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성경책, 감사헌금 봉투도 함께 있었다.

처가댁은 우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20분 걸리는 곳인데 큰 처남은 해외 근무 중이었고 당시 60대 중반인 장인어른과 30대 중반인 막내 처남이 같이 살았다.

장모님까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아내는 반찬을 해서 친정 냉장고에 넣어두고 청소도 하고 왔는데 하나도 손대지 않아서 버리고 다시 채우고를 반복했다. 1년 사이에 큰일을 두 번이나 겪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장인어른과 처남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고 그들을 돌보는 아내까지 서로 지쳐가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모두 한집에 사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방 4개 있는 집을 찾아 그렇게 뛰어다닌 것이다.

우리 집에는 당시 초등학생 아들과 미취학 연령인 딸이 있었는데 다행히 방 4개인 아파트를 구해 2001년 가을에 이사했다. 우리 부부가 방 하나, 다른 하나는 장인어른, 또 하나는 처남, 마지막 방은 아들이 사용했는데 딸 방이 없는 게 문제였다. 딸은 자기는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해서 거실에 공부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잠은 우리 부부와 함께 자게 했다. 장인어른과 처남은 활기찬 예전 모습을 찾아갔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내가 매우 만족해했다.

2002년에는 회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어 부산에서 근무하며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 사실은 장인과 처남, 아내를 생각해서 내가 이동을 자청했다. 4년 후에는 다시 대구로 와서 근무했다.

그사이 막내 처남이 결혼했는데 주말부부 하느라 내가 아이들과 추억을 많이 못 만들어 그게 아쉬웠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인께서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가 있던 큰처남이 복귀했는데 집



을 대구에 구하지 않고 구미에 구했다는 것이다. 장인께서는 대구에 친구와 지인들이 다 있으니 대구를 떠날 수 없는데 말이다. 왜 그랬는지 눈에 보여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장인어른 모시는 문제로 쳐가댁 식구들과 가족회의도 했지만 답은 안 나오고 가족 간에 골만 깊어졌다.

나는 장남인 쳐남이 자기 없는 동안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앞으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다. 오히려 아파트 구하는 돈이 부족해 장인께 돈을 벌려 갔다는 소리에 이게 뭔가 싶었지만, 뭘 바라고 모신 일이 아니니까 좋게 생각하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자고 아내와

결론을 내렸다. 장인어른도 며느리보다 딸이 좋은지, 좋아하셨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장인께서 등산 가서 무리했는지 저혈당으로 쓰러지셨다.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얼마 후 코로나 치하의 세상에서 돌아가셨다. 2021년 4월 20일 장인어른 87세 때였다.

요양병원으로 가시기 전에는 당신이 지낸 방을 오래 둘러봤다고 아내가 얘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나는 빈방에서 한참을 울었다. 장인을 모시는 일은 아이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힘든 일 이었고 사춘기도 잘 극복한 우리 아들딸이 기특했다.

이제 정말 우리 식구만 남았다. 장인이 쓰시던 방은 환자용 침대만 정리하고 그대로 놔두었다. ‘한 정리’하는 아내가 정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다.

이제 아들은 구미로, 딸은 나주로 취직해 주중에는 아내와 나 둘뿐이다. 2021년 나는 30년 넘는 직장생활을 뒤로하고 희망퇴직을 했다.

그런데 다음 해 봄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 확실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코로나가 풀리면 그동안 수고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전국 맛집 투어도 하고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또 아들딸 결혼도시키고 손자 손녀 재롱도 보고 행복하게 지낼 시간만 남았는데…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내 시간은 가고 있다. 나로 인해 가족이 힘들어한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자!’ 하는 각오와 용기가 생겼다.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들딸에게 먼저 다가가 주말과 연휴 계획을 의논하고 함께 실행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물론 아이들도 좋아해서 지금도 2주에 한 번은 꼭 함께 보낸다. 왜냐하면 2주 간격으로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서 격주로 주말은 병원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동생과 처남이 차로 데려다준다. 입원은 3박 4일 하거나 4박 5일 하는데 처남은 내가 자기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그런 처남이 참 고맙다.

작년 항암 치료 초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몇 번을 쓰러지고 먹지를 못해 체중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생사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17차 항암 치료를 마쳤고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자려고 방문을 여는데 아내의 옆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나를 위해 이것저것 만들어 준다고 애썼고 지난주에는 병원에서 불편한 보호자 자리에서 간호하느라 고생했고 주말에 아들딸이 오면 먹을 거 준비하느라 했던 모든 고생이 아내의 코 고는 소리에 다 묻어서 들린다.

타지에서 회사생활 하느라 지금은 비어 있는 아들과 딸의 방. 아직 2~3년 차 사원이지만 회사에 흥미를 느끼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대견하다.

주말이면 채워질 자녀들 방을 뒤로하고 장인어른께서 쓰시던 방문을 열었다. 지팡이, 안경, 모자 그리고 평소 보던 성경책 등 장인께서 사용하시던 물건이 눈에 들어오고, 그때 일들 그때 했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제 장인어른 계시던 방 방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도 자리 방으로 들어간다.

Letter 07



슬기로운 병실 생활

김진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내 나이 50대 중반, 지속적인 복통으로 간 병원에서 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 맹장염! 그것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기에 정신 없이 입원하고 당일에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7박 8일의 병상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여러 어르신들과 동고동락했답니다. 우리 방 식구들을 소개할게요.

정 할머니 : 80세, 침대 낙상으로 오른쪽 다리 골절

이 할머니 : 87세, 지하 주차장에서 발을 헛디며 넘어짐. 척추 통증으로 절대안정 요함

신 할머니 : 88세, 허리 수술 후 낙상으로 다리 골절. 와병생활하심

김 할머니 : 92세, 팔 골절로 입원 중에 폐렴 증상이 있어 장기 입원 중.

이상 3병동 19호실, 우리 어르신들 병상 프로필입니다.

새벽 6시 반부터 아침을 시작하는 부지런한 정 할머니는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뾰글뾰글 파마머리 정성껏 빗고 늘 같은 구겨진 환자복 이지만 정성껏 어루만지며 예쁜 스카프로 포인트 찍고 오늘도 슬기로 운 병동 생활을 시작합니다.

헤어스타일이 멋진 이 할머니는 소싯적에 안 해본 운동이 없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뛰는 축구 경기는 빼놓지 않고 보신대요. 카리스마 건재한 319호 '방장 언니'이기도 한데 방장 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딸내미들에게 전화하십니다.

‘휴지 필요하다, 물티슈 다 써간다, 조끼 가져오고 목도리 잊지 말라.’

늘 딸만 바라보는 딸바보 할머니입니다. 세 딸 덕에 할머니 침상과 서랍은 생필품과 간식이 넘쳐납니다.

이 할머니는 누워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허를 찌르는 한마디로 저에게 수술한 배를 부여잡고 웃음을 참아야 하는 고통도 주셨어요. 혈관이 약하고 팔에 부종도 있고 몸이 태닝한 것처럼 까매서 3일에 한 번 링거 바늘 교체할 때마다 간호사님이 혈관 찾느라 진땀을 뺍니다.

“할머니, 혈관이 잘 안 보여요.”

“혈관이 왜 그리 안 보이누? 그럼 내가 쓰는 돋보기 좀 빌려줄까?”

재미있는 시트콤 같은 할머니와 간호사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애는 몇 살이야?”

순간 열심히 혈관 찾던 간호사 살짝 빠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집을 가야 애가 있지, 시집도 안 갔는데. 그리고 저 비혼주의자 예요. 시집 안 가요!”

갑자기 밝혀진 간호사 샘의 사생활에 킥킥 웃음 참느라 그날 저는

배가 많이 아팠지요.

그리고 가장 상황이 안 좋은 우리 신 할머니. 드시는 것도 볼일 보는 것도 많이 힘들고 진통제와 수면제로 벼티셨지요. 가끔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저더러 “젊은 사람이 왜 입원했느냐”고, “빨리 나아서 퇴원 하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신 할머니, 꼭 쾌차하세요.

그리고 우리 병실 최고령 김 할머니! 김 할머니는 전화 통화도 없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듣지 못했고 늘 혼자 조용히 계셨는데 입원 3일 만에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교사로 퇴직했고 아들 내외가 모두 외국에 살아서 퇴원하면 돌봄 받을 요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요. 남의 얘기하듯 덤덤한 할머니 표정 앞에서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저 딸처럼 잠깐 말씀을 들어드릴 뿐이지요.

이렇게 5명의 병실 식구가 7박 8일 동안 가족 아닌 가족이 되어 힘든 병실 생활을 슬기롭게 지낼 수 있는 베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316호 우리 어르신들이 보듬어주신 덕분에 위로받고 따뜻한 병실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퇴원하고 셋바퀴 굴리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문득 문득 생각이 납니다. 몸은 비록 노화되어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강하셨기에 그 정신력이 우리 할머니들을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할 겁니다.

3병동 어르신들과 지금도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회복 중인 모든 분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Letter 08

다시 만난 아궁이

이정아 | 충남 보령시 천북면

저는 노후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복잡한 도시,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 숨이 막힐 것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남편의 은퇴와 동시에 때마침 지인이 살다가 3년 간 비워둔 집이 있다고 하는 말에 남편과 저는 “우리 이사합시다”하고, 지난해 8월 이곳 충남 보령으로 내려왔어요. 쓰던 가구, 소파, 침대, 피아노 등을 다 버리고 옷과 책, 식기 도구만 가지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둬서 엉망인 집을 청소하고 나니 살만한 곳이 되었어요.

남편은 내심 ‘은퇴하면 뭐하고 사나’ 걱정을 했던가 봐요. 여기 오니 매일매일 소일거리가 많아서 놀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은근 좋아합니다. 마당이 넓으니 아침에 일어나 잔디 깍고 정원수 관리하고

풀 베고 하루가 금방 가요. 매일 조금씩 나눠서 관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지루하거나 무료하지 않아요.

가끔 오일장에 나가서 꽃도 사다가 심고요. 바다가 바로 옆이다 보니 해루질도 나갈 수 있어요. 소라, 고동, 게, 낙지, 굴 등 해산물도 마음껏 먹고요. 여행 가고 싶으면 둘이 훌쩍 떠나기도 하고, 가끔 등산도 하고, 자전거 라이딩도 즐기고… 살면서 요즘처럼 즐거웠던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궁이. 마당에 아궁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동네에 새우양식업 하는 능력자 사장님을 찾아서 바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닭례로 오리백숙을 해서 맛있게 대접했지요.

아궁이에 불을 때고 있으면 예전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4~5학년쯤 저녁이면 엄마가 밥 가마솥에 불을 때라고 시키셨어요. 동생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일을 시키니 저는 항상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정지(부엌) 앞에 앉았지요. 연기도 나고 뜨겁기도 하고 불 때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는 엄마가 남의 집 일을 가신다면서 저 보고 아예 저녁밥을 해놓으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시킨 대로 가마솥에 미리 불려놓은 보리쌀을 넣고 그 위에 쌀을 씻어 올리고 물을 손등에 반쯤 올라오게 봇고 뚜껑을 닫고 불을 떴어요. 늘 엄마가 하시던 대로요. 근데 엄마가 할 때는 '밥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불을 줄이셨는데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밥 눈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염없이 불을 때고 있으니까 밖에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얘야! 밥 탄다! 밥 탄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불을 끄고 솔뚜껑을 열어보니 에구머니나! 밥하고 가마솥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더라고

요. 저는 타는 냄새도 못 맡고 불만 때고 있었으니 큰일 났다 싶었죠. 솥에 물을 부어 탄 밥을 긁어내는데 잘 안됐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혼날까봐 정말 열심히 솥을 닦았는데 그럴수록 부엌에 검은 숯가루만 여기저기 더 묻기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 다녀온 엄마가 그 광경을 보시고는 어린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호되게 혼만 났던 기억이 나오요. 그 후로 저는 불 때는 일이 더 싫어져서 도망 다니기 바빴고 동생이 저 대신 불을 땠어요. 다 어린 시절의 못난 추억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나네요.

근데요. 왜 지금은 불 때는 것이 이렇게 좋을까요. 옛 추억 때문에? 아님 나이를 먹은 탓에? 이제야 불맛을 안 걸까요? 어찌됐던 저는 지금 아궁이가 있는 이곳 생활이 참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사 오길 참 잘했다 싶어요. 불만 지피면 밥도 되고 백숙도 되고, 곱창, 찌개, 감자탕…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아궁이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남편이 화목 난로도 설치해줬어요. 매일 난로에 불을 지피고 옆에 앉아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때론 가래떡이랑 고구마, 달걀도 구워먹고.

특히 여기는 서해안 쪽이라 지는 해가 정말 예뻐요. 노을이 지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자연환경을 주신 신께 감사드려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뜻일까요?

남편이 종종 묻습니다. 여기 내려온 것에 후회 없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전혀 없다고. “여기 내려오길 참 잘했다! 나는 이곳이 참 좋다!”라고요.

Letter 09

아픈 손가락

성창훈 | 경북 포항시 북구

저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세 명의 아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찍이 부모님을 하늘로 보내고 형제자매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듬직한 첫째 아들과 딸아이 같은 둘째 그리고 애꿎은 셋째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아픈 손가락인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6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고 그 후 몇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호전은 되지 않고 3개월마다 수술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시한부 아닌 시한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들이 너무도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큰아들, 당시 8살 나이인데도 엄마가 일을 가고 난 뒤 갓 돌 지난 막내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5살이던 둘째 아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늦은 밤 무서워 울던 그 아이가 저에게 너무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 아이가 30만 원이 든 봉투와 어디에서 얻어온 것인지 낡은 두 벌의 유도복을 꺼내 놓고서 꺼이꺼이 울면서 유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년 동안 저도 모르게 집 뒤 딸기밭에서 주말과 방학이면 허드렛일을 하고 그 돈으로 동생들 용돈과 집 생활비를 보태었다고 합니다. 또한 꺼내 놓은 유도복도 중고 사이트에서 샀다는 걸 둘째 아이에게 뒤늦게 듣게 됐습니다.

전 그 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뺏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병원비와 수술비만 없다면 이 아이는 손수레를 끌지 않아도 되고 또래 친구들처럼 뛰어놀 수 있었을 것인데… 한동안 첫째 아이를 볼 때면 눈물만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만 사라지면 된다는 생각만 들었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고 아내의 원망 어린 질타에 저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아내가 식당에서 벌어오는 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데 그중 70%는 저의 수술비와 병원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로 생활해야만 하는 형편이라 멀리 있는 큰아들과 집에 있는 두 아이에게 풍선껌 한 통도 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지라 2월 10일에 받아야 하는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아내는 죽고 싶냐고, 당신 없으면 나도 죽는다고 하더군요.

멀리 있는 저의 아픈 손가락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못난 아버지를 안 만나고 부자 아버지 만났더라면 자기의 꿈을 크게 펼치고 손에 굳은살도 없었을 겁니다. 아이의 양손에 손수레를 끌며 생긴 굳은살은 저에게 큰 상처이고 죽는 그날까지 미안함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아픈 손가락이며 너무도 듬직한 아들입니다.

어제는 그 아이가 제 생일이라고 외박을 받아 오려고 엄마에게 차비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모자의 대화를 들으며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약값 때문에 아이에게 버스비 3만 원을 보낼 수 없다는 대화가 너무도 슬펐습니다. 아이는 혹시나 아빠의 마지막 생일이 될까 오려고 하고 아이 엄마는 난방비를 내고 나니 돈이 없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며 또다시 그만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유도 특기생으로 중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중학생들과 힘든 운동을 하는 큰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자꾸 눈물이 날 뿐입니다.

작년에 큰아이를 보낼 때도 시장에서 만 원에 구입한 여름 트레이닝복과 제가 입었던 속옷 그리고 몇 년을 입은 낡은 겨울 점퍼를 입고 가면서도 이것도 자기는 좋다고 웃으며 떠나는 아이의 어깨에 애달픔이 걸려 있더군요.

삶이란 건 무엇이고 돈이란 건 무엇인지 이제 13살 나인데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에게 아빠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일은 아닌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여성시대와 당당이들의 이야기는 웃음과 눈물을 주고 있습니다.

Letter 10

제 직업은

애청자

제 직업은 홈쇼핑 상담사입니다. 홈쇼핑은 그리 크지 않아요. 주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전화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 뺨 되십니다. 예전에 일했던 곳은 주 고객들이 젊은 층이라 빠르게 주문해드리고 넘어갔다면 여기는

“어떤 상품 주문해드릴까요?”

“몸에 좋은 거, 그거!”

“그거 청소도 할 수 있더만. 진짜 깨끗하게 된다네?” 이런 식이거나 “어머님, 카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물으면 “엄청나게 길어. 얼마 전에 발급받았어. 길어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태반이라 주문받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갔어요. 이러다가는 하루 일정량의 주문도 못 채우겠다 싶어 조급함마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문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친정어머니를 그려보니 ‘그래, 천천히 전화 받자. 우리 엄마도 사고 싶은 걸 못 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물건을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주문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번 다시 전화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생겨도 괜찮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전화기 너머에서 그분들의 삶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들, 지금 아파서 쉬고 있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보내고 싶어.” 아들에게 보낼 건강식품을 주문하는 어머님. 주소를 한 자 한 자 불러주시는 어머님께 ‘아드님 꼭 좋아지시기를…’ 통화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도 했고요.

허리가 아파서 근래에 통 일을 못 했다며 허리 벨트를 주문하는 과수원 아버님께는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시고 조금씩 쉬면서 하시라”고 제 진심도 전하게 됐습니다.

또 ARS 자동 주문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이 계셔서 “자동 주문 너무 복잡하죠? 제가 차근차근 도와 드릴게요.” 천천히 주문을 도와드렸더니 친절하고 짹싹하다고 어찌나 칭찬하시던지. 부모도 잘 모시고 자식도 잘 키울 것 같다면 기분 좋은 덕담도 들었답니다.

요즘은 ARS 자동 주문처럼 키오스크 주문이 어려워 돌아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미래에는 또 다른 시스템이 도입될 텐데 어쩌면 이분들의 모습이 곧 미래의 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때는 변화하는 세상에 왜 적응하지 못하냐며 꾸짖는 시선이 아니라 ‘그래요. 너무 어렵죠? 괜찮아요. 제가 도와 드릴게요.’ 손 내미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Letter 11

다음 소희

애청자

혹 시 ‘다음 소희’라는 영화 아시나요? 홈쇼핑 콜센터로 실습 나갔던 고등학생이 자살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움이 커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도 아이들 다 키우고 앞자리 5자가 되니 제대로 된 알바도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렵게 홈쇼핑 콜센터에 합격해서 근무하게 됐는데 정말 많이 속상하고 힘듭니다.

자리를 비울 때마다 ‘자리 비움’ 시간 체크해야 하고, 식사도 팀장이 하고 오라는 말을 해야 갈 수 있어서 시간이 들쑥날쑥. 어느 날은 열 시 반이었다가 어떤 날은 열한 시였다가 매일 제때 못 먹어요. 교육은 겨우 7일 받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진땀 빼기 일쑤고 고객님들에게 친절은 언제나 1순위.

한 번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처음 상대했던 상담원과

이야기가 잘 되지 못한 어떤 고객이 종일, 그러니까 아침 여덟 시부터 퇴근 시간인 다섯 시까지 거의 모든 상담원에게 하대와 이유 없는 욕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루종일이요. 그래도 참고 상대해야 했습니다. “야!” “너!”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하시면서 “거기서 너 같은 애를 써주냐?” “너 소속이 어디야?” 하면서 종일 막말해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런 어이없는 전화도 참고 상대하면서 콜수도 채워야 하고 불만 많은 고객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제대로 응대 못 하면 다들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혼나고 참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사는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아줌마입니다만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은 거의 퇴사를 해버렸어요.

저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근무해야 할지. 영화 ‘다음 소희’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들 힘들기만 하네요. 제 신세가 마치 회사를 대신하는 ‘방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패. 소리 없는 전쟁터의 희생물이 된 기분입니다. 이 전쟁은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들 꼭 한 번 생각해주세요. 우린 회사에 불평불만을 그저 받아서 적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은 하지 말아주세요.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저는 내일 또 방패가 되어 전쟁터에 나갑니다.

Letter 12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애청자

인터넷을 하다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겠는가?’ 보기 1번은 30년 젊어지기, 2번은 100억 받기였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당연히 1번이 아니겠는가 싶어 무수히 많이 달린 댓글을 확인하니 의외로 100억 받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곧 1번과 2번을 택한 이유도 알게 되었다. 나 같은 미혼이나 아직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1번을,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2번을 주로 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 젊음은 포기해도 좋으니 현재 있는 자식들에게 넉넉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렇구나. 오롯이 자신만 책임지면 되는 나는 미처 생각해 낼 수조차 없는 마음이었다.

그러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올해 40대가 된 나의 어린 시절. 보통의 부모님들은 다정한 엄마와 엄한 아빠인 듯했다. 하지만 우리 집

은 반대였다. 나는 다정하고 세심한 아빠가 있었으나 차갑고 무뚝뚝한 엄마도 있었다. 엄마는 성격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또한 매정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난 엄마에게 저주에 가까운 소리만 듣고 살았다. “네가 또 딸로 태어나서 쓸데없는 딸이 하나 더 생겼다. 넌 고모를 닮아서 정말 싫다. 네가 말하는 건 다 공해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등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들들 볶으셨고 내 힘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다니느라 저축을 늦게 시작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다른 집 자식은 얼마를 모았다더라. 넌 정말 못났다’라며 수치스러운 비교를 하셨다. 난 그런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했다간 바로 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집 자식들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고 생활비를 지원받은 건 그 집의 가장이 돈을 잘 벌어왔기 때문이고 우리 집은 네 아비가 돈을 잘 못 벌어서 그런 것이라고. 항상 엄마 자신은 부모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권리는 꼭 챙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고아가 된 기분으로 살아왔다. 이젠 엄마도 연세가 들어 기력이 없어지시면서 은근히 나에게 기대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정이 가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저 질문을 우리 엄마에게 하면 과연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궁금해졌다. 만약 엄마가 100억을 택하고 그 이유 또한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간의 서러움과 야속함이 조금 씻겨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30년 젊어지는 것을 택하겠다고 하셨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셨다. 너를 대학에 보내지 않고 공장에 보내서 그 돈으로 본인이 공

부를 하고 싶다는 기상천외한 대답이 돌아왔다.

헛웃음이 났다. 예상을 너무나도 빗나간 대답. 나는 화가 나서 답 문자를 보냈다.

<엄마, 누가 보면 엄마가 나를 대학 보내준 줄 알겠어. 등록금 내가 벌어서 간 거야. 아니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대학에 다닌 것조차 못마땅했던 거야? 엄마는 부모고 나는 자식인데 세상에 어느 자식이 자기 공부를 포기하고 부모 공부를 뒷바라지해?>

더는 엄마에게서 답 문자가 오지 않았다.

나는 궁금하다. 엄마에게 모성애라는 게 있기는 할까? 엄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다. 그것이 엄마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만든 것 같다고 언니는 말한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아 본 적이 없기에 설령 자식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언니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라고 말한다.

“엄마도 이제 많이 늙었어. 살면 얼마나 사시겠니.”

“글쎄. 난 아직도 화가 나, 언니….”

“그건 니가 아직 엄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 아직도 니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런 걸까. 힘이 듈다.

하지만 나에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지금은 결에 없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무조건적 내리사랑을 난 기억한다. 그것으로 벼텨본다. 하지만 계속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Letter 13

고등공민학교 시절 친구들

남숙 | 전북 전주시

지식백과엔 고등공민학교를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다.
<초등학교·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1979년 3월 백여 명에 가까운 남녀 친구들이 OO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세 칸짜리 교실 두 동에 재래식 화장실 한 동, 학교 관사, 두레박 우물에 조그마한 운동장이 딸린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그곳에서 우리는 3년간 함께한 교실에서 희로애락을 같이하였다.

그곳에서도 교복과 교가와 졸업식 노래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었으나 정규 과정이 아니라서 반드시 검정고시 5과목에 합격해야만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검정고시 과목과 그 외 몇 과목 외에는 거의 배우지 않았고 선생님 한 분이 두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셨다. 가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안타까움에서인지 필수가

곡인 ‘그네’, ‘선구자’, ‘청산에 살어리랏다’ 등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였다.

대부분 친구는 형제자매가 많고 가난하다 보니 시내에 있는 정규 학교보다는 수업료가 훨씬 저렴한 이곳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시절 점심 도시락은 뭘 먹었는지도 기억에 없지만 우리는 봄이 되면 전교생이 교장선생님의 논에 가서 모를 심고 점심은 다 같이 논두렁이나 길가에 앉아서 퍼진 국수를 먹었고 식목 일에는 근처 빈 언덕 같은 곳에 나무를 심었고 가을에는 낫으로 벼를 베기도 하였다.

어떻게 그 어린 손들이 그 일들을 해냈나 싶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중학생은 지금의 중학생과는 비교하지 못하게 들일도 잘했고 정신적으로 성숙했던 거 같다.

초라하고 내세울 거 없었던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려 한 건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려 했는지는 모르나 매년 봄·가을 두 번은 내소사, 선운사, 해인사, 송광사 등의 사찰로 소풍을 갔고 수학여행도 갔는데 지금도 내소사에서 벚꽃 흘날리던 아름다운 모습은 기억이 생생하다.

소풍 가기 전날에는 선생님들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기 위해 몇 명이 모여 밤새 수다를 떨고 도시락을 싸기도 하였고 일 년에 두세 번은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시내에 전교생 모두 줄을 지어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참으로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우울하고 고달픈 시간이었지만 대부분 친구는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정규 고등학교도 가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산업체 고등학교에도 갔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바람이 들려주는 소식들을 아주 드



물게 들으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숙이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 <나는 누구인데 너 남숙 맞느냐?>고. 즉각 전화를 했고 한참 통화 끝에 우리가 육십이 되기 전에 얼굴 한 번 봐야지 않겠냐고 몇 명 이서 연락되었다고 나도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

2023년 1월 28일 크게 출렁이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양재역 8번 출구 갈빗집에 도착하니 45년 가까이 잊고 살았던 친구 상희, 점옥, 숙이, 남옥이와 상봉하였다. 어쩜 그 시절 그 모습에 그 목소리에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던지 너무도 반가워서 갈비찜 등 음식들이 맛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숙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취미가 뭐냐고? 다들 대답한다. 만 보 걷기가 두 명, 성경 읽고 쓰기, 골프, 점옥이는 트로트 장구를 배운다는 소리에 우리는 한목소리로 “너무 멋있다~”를 연발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가정 선생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목회자의 길, 작가였고, 숙이는 성악가가 되고 싶다 해서 다들 깜짝 놀랐다. 그리고 보니 숙이 목소리는 저음에 아주 맑은 목소리라서 다들 “맞네. 아주 잘했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지병이 있느냐는 말에는 고지혈증, 오십견, 허리 디스크, 위암, 유방암 수술 이력들을 쏟아낼 때는 다들 먹는 걸 멈추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기도 하였다. 단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가끔 분노 조절을 못 하는 것, 나 자신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새로운 음식에 도전을 안 하는 것, 시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등이었다.

5시간의 만남에도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전주로 내려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초롱 초롱 빛나던 별빛과 멀리 가까이 시커먼 형체로 다가왔다 사라지는 산들의 모습, 이름 모를 동네의 불빛들을 보면서 그 힘든 시절 꼬마들이 여기 이 자리까지 참으로 잘 살아온 게 너무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대견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마지막으로 숙이의 질문이 톡으로 들어왔다. 각자의 장점 한 가지 씩을 말해보라고. 숙이는 <상대의 장점을 잘 발견하고 얘기해준다>하고, 상희는 <책임감이 강하다>하고,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다>하고, 남옥이와 점옥이는 지금도 생각 중인 거 같다. 하루빨리 답이 올라오길 기대해보며 참으로 행복한 추억 속으로 다녀와서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Letter 14



세 번째 인생

정순특 | 경남 김해시 분성로

20 15년 1월, 세찬 겨울바람을 타고 남편이 41세의 젊은 나이로 멀고 먼 세상으로 훌쩍 떠나 버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 36살, 아들은 11살. 울산에서 살았는데 집을 처분하고 어린 아들과 이곳 김해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빨리 취직되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아들은 혼자 밥 먹고 학교 가고 설거지도 해놓고 말썽 한 번 부리지 않는 모범생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이 커서 군 제대 후 복학해서 부산에서 자취하고 있던 2019년 10월 어느 날, 직원들이 모두 외근 나가고 저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안개처럼 뿌옇고 온몸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러웠습니다.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갔는데 혈압이 60에 50. 의사 선생님이 “이런 몸 상태로 어떻게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텼냐?”고

놀라셨어요. 혈관이 막혔는지 혈관 조영술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보호자가 없으니 제가 직접 사인했고 조영제 투입까지는 기억나는데 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큰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흔들어 깨워 눈을 떠 보니 잠시 심장이 멈추었다가 온 몸으로 피가 흐르는 듯 찌릿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혈관 조영술 검사 도중 심정지가 왔고 심폐 소생술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들한테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있고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니 보호자가 빨리 와야 한다고 전화했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들과 얼굴을 마주한 순간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아빠처럼 혹시나 엄마도 중환자실에서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닐까 해서 오는 내내 마음 졸이고 많이 울어서 눈도 얼굴도 통통 부었더라고요. 저도 앞만 보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속상하고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 열흘 치료받고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니며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저의 병명은 부정맥. 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뛰는 심실빈맥. 부정맥이 일어나는 자리가 대동맥이 지나는 위험한 위치라서 시술보다는 우선 약물 치료를 하며 지켜보자고 하셨죠.

다행히 약이 저와 잘 맞아서 많이 호전되고 있었는데 작년 7월, 충남 금산에서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던 토요일 저녁, 또 눈앞이 흐릿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마당으로 나오는데 어지러워 풀 씩 주저앉아 벼렸습니다.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친구들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안간힘을 썼어요. 놀란 친구들이 저를 부축해 방에 눕혀

다리를 주물러주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숨 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이 119에 전화하니 환자가 정신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시키고 베개나 이불로 다리를 높여주라는 얘기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들과 언니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구급차 타고 대전에 있는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또 한 번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폐 소생술로 다시 살아나 보니 보호자로 따라온 친구가 겁에 질려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친구는 차가운 내 손을 잡아주고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도 닦아주며 “이제 살아났으니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하며 나를 안심시켜주더군요. 아들은 대구, 언니들은 부산, 동생은 수원에 사는데 온 친구들이 병원으로 모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면회는 한 명으로 제한되어 큰언니와 아들이 차례로 들어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음 날 부정맥 시술을 받자고 권했지만 제 몸 상태를 잘 아는 부산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병원으로 가서는 다시 응급실 거쳐 입원했는데 부정맥 없애는 시술을 먼저 하고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을 또 해야 한다더군요. 내 나이 겨우 53살인데 평생 제세동기를 달고 살아야 한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고민하느냐?”며 용기를 주었고, 담당 교수님은 부정맥이 애매한 위치라 위험성이 있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가서 입원, 심장 초음파, 심전도, MRI, 폐 CT 등 여러 검사를 한 후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제 왼쪽 어깨 바로 밑에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제세동기를 삽입해서 전극으로 심장에 연결한 겁니다. 부정맥이 발생할 때 전

기 충격을 주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돌연사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네요. 약물로 부정맥을 우선 치료해보고 호전되지 않으면 또 부정맥 시술을 해야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술한 지 이제 7개월. 그동안 부정맥으로 인해 두 번의 응급실행이 있었지만 지난 1월 정기 검진 때는 심장이 많이 좋아졌다는 반가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병명을 나열하자면 심실빈맥, 심실조기 탈분극, 좌심부전, 변형 협심증, 확장성 심근병증.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언니들은 이렇게 우스개를 하세요.

“너는 아픈 것도 고급지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잘 쉬어라. 저승 문턱에 두 번이나 갔다 왔으니 백 살까지는 문제없을 거다.”

저도 “언니들아, 내 특기가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는 거다”하고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와 함께 병원 투어를 해주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언니들, 나를 살게 해준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고아가 될 뻔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에 더 신경 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18년 동안 가장 역할 하느라 몸을 돌보지 않고 일만 했던 어리석은 내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늘이 내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내 모습에 감사합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째 삶을 살고 있으니 언니들 말처럼 저, 백 살까지 살 수 있겠죠?

Letter 15

간헐적 농부와 고들빼기

김미현 |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남 편과 아들 삼형제 키워 가며 2012년부터 정육점을 운영했다. 냉동 창고에 무거운 고깃덩어리들을 옮기고 차가운 고깃덩어리 손질하며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다.

나와 남편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어릴 적 추억이 많아 훗날 전원생활을 즐기고 농사도 짓자고 약속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깨와 허리까지 다쳐가며 열심히 벌어 산골 구석진 곳에 모양이 빼뚤빼뚤한 작은 땅을 샀다. 내 키만한 풀이 잔뜩 자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모양이 이상해도 풀이 무성해도. ‘어리석게 구석진 시골에 저런 형편없는 땅을 뭐 하러 샀느냐’는 소리를 들어도 우린 마냥 좋기만 했다.

훌쩍 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풀을 뽑고 유실수 묘목도 사다 심었다. 농사를 지으려니 농기구와 물이 많이 필요했다. 옆집 어르신이 물

을 빌려주어 농작물을 심어 봤는데 가뭄에 말라죽기 일쑤였고 멋모르고 땅볕에서 무리하게 일해 일사병으로 고생도 했다.

몇 년 후 우여곡절 끝에 정육점을 접고 나는 전공을 살려 간호사로 남편은 회사원으로 살며 쉬는 날 농사를 지었다. 농사에 대한 지식도 없는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하늘은 예전에 정육점 할 때 닦 손질을 못하고 동태칼을 들고 서 있는 내게 닦 손질법을 알려주려 닦 사부님을 보내셨듯 이번에도 우리에게 농사 사부님을 보내주셨다. 우리 땅 옆에 사는 어르신인데 우리가 어설프게 농사짓는 걸 보고 재밌어 하셨다.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아엎는 로터리를 쳐야 해서 경운기 중고 매장에서 경운기를 주문하고 '소공, 중공, 대공'이라는 말도 배우며 지하수도 팔다. 농기구를 싣고 다녀 차 안이 온통 흙 범벅이고 농사짓다가 열사병에 걸린 경험이 있어 농막도 장만했다. 무리가 되긴 했지만 저렴한 농막을 하나 장만하니 일하다 쉬기도 하고 비가 오면 피하기도 좋았다. 거리가 있고 둘 다 직장에 다니니 의도치 않게 '간헐적 농부'가 되었다.

우리가 수확한 농작물은 상품성이 없어서 주변에 다 나눈다. 몇 년 전 가을, 로터리를 치러 갔더니 옆집 어르신이 고구마와 마늘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다가 말씀하셨다.

“이 밭이 고들빼기 천지구면. 이것도 고들빼기, 저것도 고들빼기네.”

고들빼기 김치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정작 고들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두리번거리니 어르신이 땅에서 두 뿌리를 캐 보여주셨다.

“이게 고들빼기여! 김치 담그면 아주 맛있제.”

어르신이 가시고 나서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고들빼기 밭을 만들어서 지인들한테도 나눠 주고 이제



는 사 먹지 말고 고들빼기 김치를 담그자.”

우리는 로터리를 치고 어르신이 알려준 고들빼기를 캐다가 줄 맞춰 열심히 심었다. 잘 자라고 거름까지 넉넉하게 주고 고들빼기로 김치 담그고 지인들한테 나눠줄 생각에 신이 났다.

3주가 지나 1시간 넘는 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갔다. 밭에 도착하니 거름을 듬뿍 뿌려서인지 비가 충분히 내려서인지 고들빼기가 푸릇푸릇 아주 잘 자라고 있었다. 이제 수확해도 될 만큼 컸기에 흥이 절로 났다.

우리 차가 보이니 어르신이 그 날도 우리 옆으로 오셨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알려 주신 고들빼기를 캐서 밭에 키웠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

어르신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놀라셨다.

“우와! 뭔 놈의 잡풀이 저리도 많이 났대?”

“엥? 잡풀이라뇨? 전에 어르신께서 가르쳐주신 고들빼기를 옮겨 심고 거름까지 줬는데 이거 고들빼기 아닌가요?”

어르신은 박장대소하셨다.

“내가 알려준 고들빼기랑 비스무리한 풀을 잔뜩 갖다 심었구먼. 거름은 뭐 하러 줬대!”

어르신은 땅에서 고들빼기를 뽑아 다시 가르쳐주셨다. 그런데 잡풀과 고들빼기가 꼭 닮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거다. 우리 부부는 씩씩거리며 고들빼기 닮은 잡풀과 진짜 고들빼기를 구분하지 못하기에 뭉땅 다 뽑아 버리고 모르는 나물은 다시는 심지 않기로 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고들빼기인 줄 알고 김치까지 담글 뻔했다.

어르신이 알려주신 대로 가을에는 양파와 마늘을 심어서 다음해 봄에 친정엄마한테 꽃다발 대신 마늘다발을 선물했다.

매년 명절이면 우리는 어르신께 약주 한 상자 쟁겨 드리고 어르신은 손수 잡은 해삼이나 농작물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 얼마 전에는 손수 제작한 캠핑카를 보여 주셨는데, 농사에 여름에는 미꾸라지 키우고 간판 만드는 기술도 있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다.

“올해는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집에 자주 없을거. 우리 앵두, 보리 수 따먹고 올 엄니가 심어 놓은 수선화랑 봄꽃 다 캐다 심어.”

작년에는 내게 작약과 봇꽃을 캐다 주셨다. 자연산 달래와 논냉이, 밭냉이도 알려 주신 어르신 뵐려 갈 때 양말 보따리 선물로 쟁겨들고 가야겠다.

“저희에게 농사 스승이고 인생 스승이신 어르신! 건강하시고요. 저번에 물때 맞춰 박하지 잡으러 가자고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박하지가 민들민들한 꽂게라는 걸 알았네요. 어르신, 우리 올해는 꼭 박하지 잡으러 가요.”

이달의 손편지

사랑하는 아버지께

유재임 | 군산시 나운3길

설아오면서 다른 이들에겐 편지도 마음이 쓰고 카드도
곧잘 쓰곤 했는데 아버지께는 대여나 처음 써보는
편지나 병씨부터 가슴이 뜡뜩해집니다.

아버지! 어느새 80년이란 세월이 아버지를 따라
여기까지 와 있네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더 많아 냄새보다 더
고되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보다는 거 잘 압니다.
끼니도 맛 챙길 만큼 업는 살림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거 없어 점은 시절 참 많이도 서러워졌기에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어리가서는 기죽지
말고 살라며 있는 힘껏 저희들에게 희선을 다하셨고

이만큼 잘 성장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따닐 때쯤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분 보증을 잘 뜯어서 집이며 놀이며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그 상황에도 제가 걱정할까봐 어려운

경험인데도 학교를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아버지를 같았으면 대학 그만두고 취직해서 동생들

돌봐라지하고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지요.

줄줄이 있는 자식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고

막막하기 그지 없었을 텐데도 아버지는 늘 고생 뜻 짜증

한번 안내시고 저를 무사히 졸업하게 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 경험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내기도 했고

미기자, 이기도 해서 차마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로 오십이 촐씩 넘은 나여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놓고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야 부모 마음을 조금

알 거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큰
딸 때문에 속상하고 나면 마음은 둘째 땜에 가슴 즐이고
마음은 넷째 사는게 마음 아프고 좀 나아질만하면 넷째
땡에 가슴 미어지고 땁내 땅에 또 그리고...
하루도 마음 떤할 날이 없으셨을 줄 압니다.
자식 낳아 키워보니 자식이 우선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 아버지보다 당진은 뒷전이고 자식이 먼저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 아버지만 생각하세요.
지금껏 충분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으니
이젠 좀 이기적이셔도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하고 욕심내지 않으시고 입는 쌀김에도 어려운 사람
보면 나를 따라 안내하고 그렇게 살아오셔서 아버지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분이세요.
이만하면 잘 살아오신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알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것 잘 알기에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 같지 않아 속으로
눈물을 삼키신 정도 많았을 텐데도 큰소리 한번 아니시고
이 놈의 가시내 한 번 암하진 울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기 그지 않습니다.
늘 목록이 저희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리 살갑지 못한 딸이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들을 많이하신 걸 축하드리며 큰 딸 읊김



여성시대 사진방



[4901] 열심히 농사 시작해봅니다. 고추 농사, 감자 농사입니다.



[9551] 청개구리가 딸기 잎에 앉아서 봄별 찍고 있네요.



[6160] 월간 여성시대 3월호 받아 갑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집에 가서 빨리 봐야겠어요.



[5597] 오늘 참외 첫 출하 작업 중입니다.



[9763] 완도 약산 당목 바다에서 부모님과 다시마 속고 있어요.



[6702] 제주 야생 수선화입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강원도 강릉시의
여성시대 가족 김병연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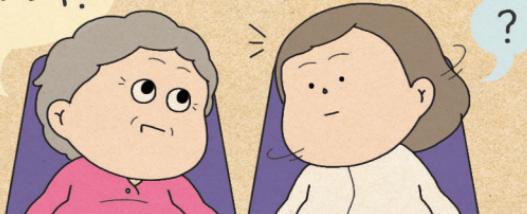


도시에서 살 때는 전원을 그리고 그리워했건만
막상 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산골에서 살다 보니
도시의 복잡함이 그리워진 나는



그렇게 몇 년 만에 서울로 가는 KTX에 몸을 실었다.

어디까지 가우?



일흔 후반 정도 되셨을까
기차 옆자리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난 서울 병원에 가
청량리까진 가봤는데
서울역은 처음이라

저기 앉은 군인 총각한테
이따가 길 좀 알려달라고
부탁해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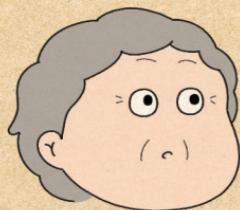
6개월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경과 보려 가.

수술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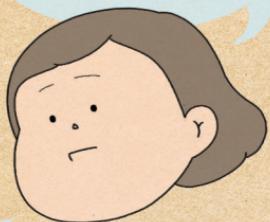
할머니가 가신다는 병원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서너 정거장
택시로는 만 원이 채 나오지 않는 거리였다.





잉? 나한테
이걸 왜 줘?

전철 갈아타시려면
계단 땅에 힘드시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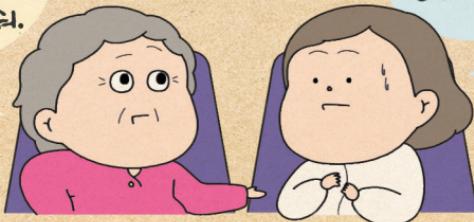
우리 언니도 다리 아파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고마워.

아니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을 줘.

전화번호요?

나 전화번호 좀
줘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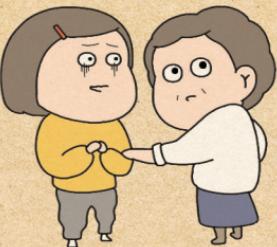


그렇게 서울로 가는 길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왔다.



한 20년 전쯤인가.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는
사색이 되서는 '엄마 나 왔어요~' 하데
황당해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뒤따라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틀 밤을 재워줬어 그이를

내가 그 보답을
새댁한테서 받는가 봐.



그렇게 할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울



태백에 놀러 오면
꼭 연락해.



그렇게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오랜만에 한 나들이에
좋은 친구가 생겨 기뻤다.



우리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다

IBK기업은행 범어동지점 거래고객

한울푸드 박규섭·최윤지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한울푸드는 국내 농산물 도소매 및 식품제조가공 업체다. 국내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고구마, 단호박, 감자, 옥수수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유통하고, 자연에서 온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밀랭이, 쟈 등 맛있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K-푸드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울푸드가 앞장서고 있다.

한울푸드는 농산물 가공 분야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 가공식품 브랜드 '모랑모랑'과 '시시때때'를 비롯해 원물 및 자사몰 브랜드 '별이들다'를 운영하고 있다.

박규섭 대표는 농산물 업계에서 일하며 버려지는 비규격 원물들을 보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

작했다. 여기에 과자나 사탕 같은 간식을 찾는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주고 싶은 진심이 더해졌다.

한울푸드의 주력 상품은 고구마 가공식품이다. 2015년 '촉촉 고구마 스틱'과 '고구마말랭이', '순수고구마'를 런칭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스틱 제조 방법을 특허출



원함에 따라 타 업체와 차별성을 구축하여 매출 100억을 달성하였다.

대기업을 비롯해 수많은 업체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울푸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다.

우선, 한울푸드는 국내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기술력도 뛰어나다. 특히 페이스트 성형 기술과 열풍 건조 기술을 통해 농산물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수분 공법을 통해 농산물 고유의 수분만으로 고당도 가공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한울푸드

의 강점이다.

제조 공정에서도 한울푸드만의 차별점을 엿볼 수 있다. 보통 고구마 가공식품을 만들 때 기계로 탈피하여 자동생산을 하는 반면, 한울푸드는 고구마를 고온 고압에서 껍질째 쪘서 수분과 당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므로 맛도 좋고 영양도 유지할 수 있다.

한울푸드는 상생의 가치를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 특히 농가와 지역, 산학, 기업 간의 협업과 상생을 중요시한다. 산지 개척 및 산지 작목반을 운영하고 고구마 원료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사료화를 통해 농가 상생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많은 단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와 MOU 체결을 통해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영천시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울푸드의 올해 목표는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선점을 통해 200억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호주, 태국, 캐나다, 영국, 홍콩, 베트남 등 전 세계 마켓에 한울푸드의

제품이 입점해 있다. 올해는 해외시장에 더욱 집중하고 2025년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까지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

“2015년 창업 이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매출이 약 98%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주문량이 많아 시설 확장이 필요했는데 IBK기업은행의 도움으로 2공장을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사업을 위해 현재 3공장을 증축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IBK기업은행 범어동지점 조정희 지점장은 “한울푸드와 IBK기업은행은 자금뿐 아니라 IBK금융그룹의 프로그램, 판로 개척, 수출 지원 등 20여 개에 이르는 비가격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동반자로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단순히 먹거리의 만드는 기업이 아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기업으로 회사의 브랜드 슬로건처럼 모랑모랑 꿈을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범어동지점 조정희 지점장(왼쪽)과 한울푸드 박규섭·최윤지 대표

❶ 한울푸드 박규섭·최윤지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2.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남녀노소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3. 농가와 지역, 산학과 상생

한울푸드

대 표 박규섭, 최윤지
전 화 053-214-5000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월성길 7-3
홈페이지 <http://deli-hanwool.com/>



지역 맛집에서 전국 맛집으로

IBK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 거래고객

도영푸드피아 김현식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도영푸드피아는 육가공 공장으로 시작해 참숯갈비 전문점

'구끼구끼'를 운영하고 있다. 육가공 공장에서 나온 고기를 별다른 유통과정 없이 식당에 바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육가공 공장부터 정육점, 식당과 베이커리 카페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도영푸드피아의 앞날이 기대된다.

도영푸드피아는 올바른 식재료와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육가공 업체로 참숯갈비 전문점 '구끼구끼'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직원 없이 소규모로 시작한 육가공 사업이 식당 체인점으로 확장된 것이다. 당시 소규모 식당에 납품하다가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고기를 직접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에 식당을 열게 되었다.

“육가공 공장을 운영할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고기를 조금씩 나눠드렸더니 맛있다며 판매하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차리고 정육점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식당 사업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호원동에서 시작한 첫 번째 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민락동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직접 설계 및 건축, 인테리어까지 관여하여 구끼구끼 민



락점을 오픈했다. 식당 사업은 처음 이었지만, 질 좋은 고기를 유통 과정 없이 바로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확신했다. 소고기는 마블링이 좋은 투뿔 제품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수입 육은 초이스급과 프라임급만 사용 한다. 가격 부담이 없어 가장 인기가 많은 한돈 구이도 최상의 퀄리티만을 고집했다. 또한 구이 전문점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고기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진짜 참숯만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구이 전문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고기와 숯의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윤을 최소화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원료육과 진짜 참숯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구끼구끼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도영푸드피아는 약 2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구제역과 광우병, 최근 코로나19까지 각가지 전염병이 돌 때마다 커다란 타격을 입었지만 굳건히 버티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변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특히 구끼구끼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기 위해 신메뉴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선보인 '진또배기 갈비'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에서 커다란 갈비대에 붙은 갈비를 직접 썰어 제공한다.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경영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때

문에 벤치마킹을 할 곳이 있으면 바로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경험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어요.”

도영푸드피아는 구끼구끼 민락점을 오픈하면서 바로 앞에 베이커리 카페 '더블 스퀘어'를 함께 지어 오픈했다. 커피나 음료는 물론 베이커리도 최상의 퀄리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식당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베이커리



사업도 더 크게 키우고자 하는 꿈이 있다.

IBK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 김계엽 지점장은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발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대표님이 도영푸드피아

를 더욱 크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확

신하며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오픈한 구끼구끼 민락점이 더욱 번성 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도영푸드피아의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도영푸드피아 김현식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 김계엽 지점장

❶ 도영푸드피아 김현식 대표의 운명 노하우

1.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라.
2. 현장에서 배워라.
3.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라.

도영푸드피아

대 표 김현식
전 화 031-878-8750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37, 3층
홈페이지 <https://www.dyfood.co.kr>

코너 속 편지

장용의 단·필·총

- 81 전차상륙함의 추억
- 86 6호차 운전병

사랑탐구생활

- 93 오늘도 생각난다
- 98 아들의 실연
- 101 나의 산타

주말엔 투유

- 106 행복하우스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총

전차상륙함의 추억

김상영 | 강원도 원주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

이 노래 다들 아시지요? 그렇다면 한국전쟁 때 그 흥남 부두에서 피난민을 구출시켰던 미군의 흥남 철수작전도 아시는지요? 저희 장인께서는 당시 9살. 북한 원산이 고향인 장인께서는 요즘도 종종 그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피난민이 엄청 많았어. 아비규환이었지.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배에서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지. 끼니를 때우려고 꽁꽁 언 주먹밥을 움켜쥐고 먹었어.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그렇게 남한으로 넘어와서 도착한 곳이 부산 국제시장 근처 바로 이 동네야.”

일가친척 하나 없는 곳에 피난 내려와 지금까지 정착하며 살아오셨던 실향민의 아픈 역사. 장인께서 9살에 타고 오셨다는 해군함은 LST(엘에스티) 전차상륙함이다.



“필승! 신고합니다! 이병 김 해군은 금일 부로 상륙함에 승조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해군 395기 ‘바다의 사위’인 나는 아버님이 타고 내려오셨다는 그 함상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타본 배였다. 근무복으로 샘브레이저 셔츠와 당가리 바지를 입고 배치되었던 함상은 훈련소 시절 견학하면서 보았던 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다. 당연히 냉난방 시설이 좋지 않았고 겨울엔 동상을 여름엔 땀띠를 달고 살았다.

게다가 한 번 출동을 나갔다 올 때마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소금기가 많은 바닷물에 금방 부식되고 녹슬어서 갑판에 다시 페인트칠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기적으로 도크에 들어가서 전체 수

리도 해야 했다. 그렇게 페인트칠하고 엔진 정비를 하다 보면 온몸에 페인트와 기름이 묻어 지워지지 않았고 특히 손톱 밑에 낀 기름때는 독한 시너로도 잘 지워지지 않아 손톱이 자라 자를 때까지 시커먼 때가 낀 것처럼 보이다가 피부가 아예 변색되는 경우도 있었다.

6.25 때부터 사용하던 배라 안전을 위해 수시로 당직을 서며 각종 배관 누수 및 누유 상태를 확인해야 했고, 각 객실에 침수 상태 및 승조원 부식이 들어 있는 대형 냉장고가 정상 가동되는지 수시로 확인 하여 순찰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순찰하다 보면 쥐들이 머리 위로 우다닥 몇 마리씩 무리 지어 뛰노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으며 ‘쥐 잡기 대회’를 열어 쥐를 가장 많이 잡은 수병들에게 특박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가끔 선상에는 꼬리가 없는 쥐와 눈을 다친 애꾸 눈이 쥐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 배에서 나는 동기 5명과 함께 근무했는데 해군의 꽂인 갑판병, 각종 보안과 편지를 전달하는 통신병, 깍쇠 이발병, 배식에 죽고 사는 조리병, 그리고 기름쟁이 내연병이 특기였던 나까지 우린 각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독수리 5형제’라 불렸던 우리는 동기간에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펑크했다.

함장님의 이발을 도맡아 했던 ‘깍쇠’는 스타일이 잘 나온 날이면 어김없이 포상 휴가를 받았고 통신병은 사령부에서 전달하는 각종 문서와 편지를 전달하느라 함상이 아닌 육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온종일 핫빛이 들어오지 않고 칙칙한 기관실 바닥에서 기름 닦고 볼트, 너트 쪼이는 일을 하던 나는 자전거 타며 근무하는 통신병과 포상 휴가를 자주 나가던 깍쇠가 부러웠다. 상병 진급을 하고 동기들은 모두 육상 근무로 전출을 갔지만 나는 혼자 함정에 남아 전역 때까지 함정만 탔다.

해군 수병들은 함정 근무자로서 전역 시까지 배에 남기로 서약하면 서해 수호자가 될 수 있는데 서해 수호자가 되어 받는 ‘배지’는 큰 자랑거리가 된다. 그리고 수병들은 이걸 ‘앵카 박는다’고 얘기한다.

28개월 동안의 군 생활 중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는데 근무 첫날 신상기록부를 작성할 때 해군에 입대한 이유를 묻는 칸이 있었다. 나는 당당하게 ‘조국의 번영을 위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처럼 바다에서 승리하고 싶어 해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라고 적었다. 그걸 본 기관사님은 나에게 물었다.

“자네, 충무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네! ‘충성을 다해 나라에 무공을 세운 군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때 내 대답을 듣고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던 기관사님과는 그 후로도 많은 추억을 쌓았다.

아침에 일어나 육상에서 단체로 체조하고 군가인 은빛 갈매기, 앵카송을 불렀으며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고향~”이라는 해군가였다. 당시 사관님이 승조원에게 상부 지시사항 및 일과 전파를 하고 배가 출항하는 날에는 1시간 전부터 함내 방송과 함께 기관실에서 출항 준비를 하였다. 출항 15분 전, 육상으로 연결된 현문사다리를 철거하고 홋줄을 풀어 버리면 예인이 시작된다. 출항 5분 전엔 예인이 끝나고 자력 항해로 부두로 빠져나간다는 뜻의 ‘출항’이라는 방송이 나온다. 그때까지 각자 정해진 임무와 구역에서 수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배는 움직일 수 없었다.

출항 때마다 나는 해군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오늘도 바다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필승 해군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곤 했다. 그래도

날씨가 좋지 않아 파도가 심한 날엔 뱃멀미로 화장실에서 먹은 걸 다 게워 내야 했고 그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에 와있나’ 해 군에 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함정 생활은 좁고 미끄러워서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한 번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동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도어에 머리가 부딪쳐 혹이 뿔처럼 솟은 적도 있다. 병장 시절에는 구축함에서 큰불이 나서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그 후로 매일 일과 종료 전에 소화 방수 훈련을 해야 했다. 안전교육을 자주 할 만큼 함상엔 안전지대가 없었다.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는 내부에 탱크를 실었고 갑판에 헬기가 착륙했으며 상륙군 해병대와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함장님은 해병대와 마찰이 없도록 특별 정신 교육까지 하셨고 당직에 훈련에 하루하루가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항해 중에 마주치는 붉게 물든 석양과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던 밤하늘이 우릴 위로하곤 했다. 특히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 가득 채워진 별들. 봄의 사자자리, 여름의 독수리자리, 겨울의 황소자리. 나는 그 별들에 반해 당직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림도 그리고 구경 온 갈매기에게 건빵을 나눠주며 우정을 쌓기도 했다.

그리고 그 군함은 98년 내가 전역할 즈음, 50여 년의 임무를 마치고 역사와 함께 퇴역식을 하였다. 지금은 함상 공원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해군의 전통과 문화, 무기와 장비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어 있다.

나의 군 생활과 9살 장인이 함께 탔던 군함. 그 위에서 아이들과 여러 체험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단필충에까지 사연을 적어본다.

장용의 단·필·총

6호차 운전병

애청자

필승! 반갑습니다! 귀신 잡는 용사! 해병대 운전병 출신, 고 해병입니다. 그날은 산과 들이 푸릇푸릇 금방이라도 화려한 꽃들로 치장하려고 분주해 보이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육군은 1호차가 지휘관 전용 지프차였지만 해병대는 6호차가 지휘관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수송 중대는 보유 차량보다 운전병이 많았고 해서 같은 운전병이라고 해도 본인 전용으로 배차를 받는 사람이 몇 안 됐습니다. 최소 상병은 돼야 운전대를 편하게 잡아볼 수 있었고 이하 짬이 안 되는 병사들은 차량 정비나 보병과 같이 훈련을 받기가 일쑤였지요.

저는 일병 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냥 다 포기하고 살자 돌아서던 때였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그냥저냥 순리대로 마지못

해 사는 것이 그나마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았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대 선임 하사님의 부름을 받고 대대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어이 고 해병, 다음 주부터 일과 시작되면 군복 단정하게 다려 입고 대대 사무실로 올라와서 대기해라! 알겠나?” “네? 왜요?”라고 차마 묻지는 못하고 그냥 어리둥절 눈만 끔벅이고 있자니 선임 하사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6호차 운전병을 새로 뽑기로 했거든. 내가 고 해병을 대대장님께 적극 추천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고 해병이 운전을 맡을 거다. 인수인계 잘 받아서 열심히 해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하면 잘리는 자리니까 잘해라. 명심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하지만 그건 뭐 나중에 가서 생각할 일이고 어찌 됐든 지금 당장 이 현실을 즐기자! 했습니다. 대대장 운전병 차출은 정말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 할 정도로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선임 하사님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챙겨주신 게 확실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동안 이전 선임한테 운전 방법과 코스, 해야 할 일 등을 꼼꼼하게 인수인계를 받고 드디어 지긋지긋한 중대 내무실을 벗어났습니다.

6호차 운전병은 대대장실 옆엔 ‘전령실’이라고 해서 일명 대대장님의 땅끼리, 비서병과 운전병 이렇게 둘만의 생활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전생에 무슨 홀륭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함께 생활하게 된 전령병, 비서가 저보다 아래 기수더군요. 일병 주제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선·후임들의 부러움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그렇게 6호차 운전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 천국

이었어요. 그러니 매일 생각했죠.

‘내 두 번 다신 내무실로 안 돌아갈끼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끼다.’

전역하는 날까지 목숨을 바쳐 대대장님께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전이면 매일 각 중대의 중대장님들은 수시로 전략회의 및 업무보고 때문에 대대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대대장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항상 전령실에 먼저 들러 “어이, 고 해병 오늘은 대대장님 컨디션이 어떠신가?”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실 때 차량 이동 시 웃으셨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담에도 잘 체크해놓도록 해.”

근데 그렇게 미리미리 확인하고 들어가도 한 소리씩 듣고 나오는 건 매한가지. 그렇게 장급들을 매일같이 보다보니 저는 일개 병인데도 가끔은 상관이나 선임들을 동네 형들로 착각할 정도로 기압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도 익숙해져 어느덧 상병 말호봉! 남은 군 생활은 꽂길만 걸을 줄 알았던 어느 날 대대장님이 간부들과 오전 업무 회의를 마치고 오시더니 “오늘은 각 중대장과 지형 정찰을 나가야 하니까 출동 준비를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해. 좀 멀리 나가니깐 전투식량도 꼭챙기고.”

“넵! 알겠습니다.”

대대장님의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지프 차량의 호루를 벗기고 전령은 나가서 먹을 식사 준비에 바빴습니다. 간만에 둘 다 바쁘게 움직이고 나니 차에 실린 짐이 많더군요. 지프차 앞쪽엔 운전병인 저와 보조석엔 대대장님, 뒷좌석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데 아마도 작전 장교님, 중대장님 그리고 전령, 이렇게 5명 정도가 승차했던 것 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작전지역을 향해 액셀을 밟았고 여기저기 산속과 계곡, 들판 등등을 몇 시간씩 돌아다니며 장병들이 행군할 곳과 숙영지를 탐색하고 나니 금방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작전도 작전이지만 허기는 달래야 하니 잠시 휴식 겸 식사를 좀 하지. 어이 고 해병!”

“네! 상병 고 해병!”

“저기 저 큰 나무 아래 저기가 그늘도 있고 깨끗하니 좋네. 저쪽으로 자리를 좀 잡아보지.”

“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지시대로 덜컹대는 비포장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 전령과 함께 부랴부랴 때늦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활동량이 많아서인지 늦은 점심이서인지 모두들 정말 맛있게 점심을 먹었지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의 그 '그럴리는 없겠지만~'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분명 점심을 해결할 장소로 들어오던 비포장길은 덜컹거리긴 했지만 큰 웅덩이라던가 차량 바퀴에 걸릴만한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차량을 돌릴만한 공간이 없어서 후진으로 큰길까지 나가야했던 상황.

지프차 룸미러는 원래 큼직해서 잘 보이는데 그날은 뒷좌석에 짐들이 많아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직선도로였고 큰 장애물도 없었으니까. 이 정도는 나의 타고난 운전실력 '감'으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지.'

호기롭게 차량은 출발했고 저의 불행도 시작됐습니다. 따듯한 봄 날 배도 채웠겠다 뒷좌석 승차객들은 탑승과 동시에 졸 준비에 들어갔고 보조석 대대장님께서도 나른한 기색이 역력해보이셨습니다. 진한 선글라스에 각 잡힌 앞머리, 지프차 난간에 다리 한쪽을 올리고 차량 앞 위쪽 손잡이에 꼬아놓은 줄을 꽉 잡으신 채 나머지 한 손엔 번쩍이는 지휘봉을 들고 키도 훤힐한 분이라 누가 봐도 '폼'이 나는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비포장도로 중간 정도를 지나가고 있을 무렵 뒷바퀴가 뭐에 걸렸는지 차가 멈춰서 움직이질 않더군요. 그때라도 내려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배부르고 군기 빠진 상병 고 해병은 귀찮았습니다.

'들어올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뭐 그냥 액셀 좀 세게 밟으면 넘어갈 거야. 아~ 넘을락 말락~ 넘을락 말락~ 쫌만 더~ 힘내자~ 봉봉아~ 쫌만 더~ 쫌만 더~'

세상 무서울 게 없던 저는 그까짓 비포장도로 작은 웅덩이쯤 가볍게 넘어설 수 있을 거로 생각하며 액셀을 더욱 질끈 밟았고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옆 좌석에서 멋지게 폼 잡고 있던 대대장님이 하늘 높이 흉~ 하고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대대장님과 슬로우 모션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공중에 떠 있던 대대장님의 눈빛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멋지게 차량 문짝에 걸어두고 계셨던 대대장님은 중력으로 급하게 하강하면서 가속으로 급소 부위까지 데미지를 입으신 듯했습니다. 저는 덜덜덜 떨며 차량 시동을 급하게 끄고 동작 그만 상태로 얼어붙어 있었고 대대장님은 어떤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아, 그 무장공비보다도 무서웠던 침묵의 시간.

대대장님의 선글拉斯 검정 유리알을 빼곤 온 피부가 붉으락푸르락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벌게진 얼굴로 식은땀만 똑똑 흘리고 있던 그때 뒷좌석에 계시던 작전 장교님이 무서운 침묵을 깨주셨습니다.

“대대장님! 괜찮으십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기로 유명했던 멋쟁이 우리 대대장님은 잠시 흐트러진 복장과 자세를 추스르고는 대답하셨습니다.

“출발해!”

차량은 덜컹대는 비포장도로를 무사히 벗어나 이윽고 포장도로에 진입. 차 안에선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하는 저의 가녀린 목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배부른 육신으로 평평한 도로를 규정 속도로 일정하게 달리다 보니 좀 전에 많이 놀랐던 몸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더군요. 육체의 노곤함이 무섭게 밀려들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살짝 눈을 좀 길게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식이!”

어디선가 반짝 별이 뜨더군요.

“이 자식, 대대장을 두 번 잡으려고! 지금 졸고 있느냐?”

“아~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다 봤는데. 이거 안 되겠네. 고 해병 뒤통수 다시 이리 대!”

“으아아악~”

저는 그렇게 대대장님의 참교육을 받고 번쩍 든 정신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대대로 복귀했습니다.

대대장님은 먼저 업무실로 가시고 차량의 짐을 정리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등을 토닥토닥 다독이는 손길이 느껴지더군요. 회의 때마다 대대장님께 자주 깨지던 분이었습니다.

“어이! 고 해병, 자네 진짜 해병대가 맞구만! 귀신 말고 대대장님 잡는 해병대~. 오늘 아주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게 평소보다 길었던 저의 하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대장님은 크게 다치신 곳이 없다며 더 이상의 꾸지람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병 말호봉이었던 저는 병장 달자마자 잘려서 중대로 복귀. 민간인처럼 군기 풀려 살다가 다시 내무실 생활을 하려니 하아~ 차라리 대대장님께 조인트 까이고 욕먹고 싶더라고요. 남들 다 고생할 때 혼자 꿀 빨다 왔으니 좋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6호차 빼 믿고 거만하게 지냈던 시절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신병 생활하듯 긴장의 연속으로 말년을 보내다 꼬인 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때 대대장님, 안 다치셔서 천만다행이고 중요 부위에 통증을 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상, 귀신 잡는 해병, 아니 대대장님 잡을 뻔한 해병대 운전병이었습니다.

사랑탐구생활

오늘도 생각난다

김경희 |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여보, 고무장갑 하나 더 사와.”

느닷없이 김장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남편이 믿어지지 않았다.

“왜에에? 당신이 김장하게?”

“이 사람, 뭘 또 그렇게 놀래?”

“아니, 당신이 맨날 그러잖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고.”

“그치! 그랬지. 근데 여긴 마당이잖아. 부엌 아니고. 아, 그래서 나 장갑 안 줄 거야?”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 장갑 대령이오.”

동갑내기 부부로 만나 평생을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며 산 우리. 그 때 나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김장을 돋겠다는 남편이 놀라우면서도 속으로 내심 생각했다.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괜히 좁은 데 와서 더 성가시게만 하는 거 아냐?’

그렇게나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오마나! 남편은 프로였다. 능숙하게 신문부터 가져와서 바닥에 깔더니 깨끗하게 씻어 놓은 대야에 절인 배추를 번쩍 들어서 차근차근 몇 개 옮기더니 준비해놓은 장갑을 사뭇 비장하게 양손에 끼고는 타고난 성격대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다.

“어머! 당신 잘한다. 몇십 년 김장한 나보다 훨씬 낫네.”

“하하하~ 내가 항상 말했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아주 기똥차다고!”

“그러게. 김치 장인이 따로 없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솔직히 나는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속도 대충 바르고 ‘어차피 다 먹을 때 풀어져~’ 이리면서 감싸는 것도 대충했는데 남편은 그런 나와 비교도 안 되게 완벽했다.

다만 한 가지.

“또 먹어?”

“굴이 아주 싱싱하니 좋네. 맛있다!”

“에잉~ 비싸서 얼마 사지도 못했구먼. 김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당신 배로 들어가는 게 더 많겠다.”

“어차피 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 미리 좀 먹어보는 거지.”

그때야 알았다. 남편을 움직인 건 처음부터 혼자 고생하는 이 마누라 내가 아니라 싱싱하고 달달했던 제철 ‘굴’이었다는 걸. 한쪽 바르다 건져 먹고 또 한쪽 바르다 노란 배춧속을 똑 떼어내서 싸 먹고.

“에효~ 이러다 굴김치는 못 하겠는데? 당신이 다 먹어서?”

“에이 뭐 몇 개나 먹었다고….”

보이는 족족 굴만 골라 먹던 남편은 미안한지 멋쩍게 웃으며 입을 닦고 말했다.

“내가 이거 단지에 다 넣고 뒷정리까지 싹 할 테니까 당신은 더 늦기 전에 얼른 목욕탕이나 다녀와요.”

“목욕탕? 진짜? 당신 오늘 왜 그러냐?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있으면 그냥 지금 말해. 나 때 빼고 광내고 와서 기절하게 만들지 말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내가 뭐 만날 사고만치는 사람이야? 당신 피곤하니까 그러지. 얼른 다녀와요.”

그날 남편의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맞벌이하느라 한 달에 딱 두 번 쉬는데 그중 하루를 김장에 쓰고 나면 솔직히 어찌나 아쉽고 고된지.

근데 그날은 남편 덕에 느긋하게 목욕하고 집에 오니 대야들은 깨끗하게 씻겨진 채 수돗가에 나란히 세워져 있고 방은 깨끗했다. 나는 고마운 마음을 바로 남편에게 전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뭔 일이래?”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저녁을 먹다가 새어 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말했다.

“굴 넣은 김치나 안 넣은 김치나 맛이 똑같네. 내년부터는 굴을 아예 넣지 말까 봐?”

“에? 뭔 소리야? 굴 넣은 김치가 훨씬 시원하고 맛있구먼. 이봐봐~ 굴 향기도 좋잖아.”

남편은 몰랐나 보다. 굴 넣은 김치는 삭아도 굴이 보인다는 걸. 그리고 그날 내가 꺼낸 김치는 굴을 안 넣은 김치라고 쓰인 단지에서 꺼냈다는 걸. 아마도 남편은 그날 나를 목욕탕에 보내놓고 혼자서 굴을 실컷 집어 먹은 모양이다. 그리고는 ‘굴을 넣은 김치’와 ‘안 넣은 김치’

라고 써서 두 통에 나눠 담고 감쪽같이 나를 속이려 했겠지만 마누라는 원래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법. 남편의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안다는 걸 남편은 진정 몰랐나 보다.

순진한 남편 때문에 웃음이 났던 기억은 또 있다. 내가 허리를 다쳐서 집에서 요양하던 때 지인이 집으로 감을 한 상자 보내줬다. 받는 순간 고마움도 잠시 ‘이걸 언제 다 깎지?’ 걱정이 앞섰다. 그때 나는 감을 그대로 두면 홍시가 되는 걸 모르는 바보였다. 허리 보호대를 차고 남편을 불렀다.

“여보, 잠깐만! 나 이것 좀 도와주라.”

바닥에 앉지도 못할 만큼 허리가 안 좋았던 나는 서서 감을 깎으며 남편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유독 차가운 얼굴로 들어온 남편은 “안 먹고 말지. 그걸 뭐 귀찮게.” 그리고는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찌나 야속하던지. 나는 닫힌 방문에 대고 소리쳤다.

“내가 깎은 거, 당신, 하나도 먹지 마!”

그러자 남편도 소리쳤다.

“걱정 불들어 매셔!”

종일 서서 껍질을 벗겨 4등분을 한 후 베란다에 널어둔 감은 남향의 빛을 받아 꾸덕꾸덕 잘 말랐다. 아이 돌보듯 매만지면 힘이 들었던 만큼 뿌듯했다.

“어? 근데 이상하다. 이건 내가 걸어둔 모양이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감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개수도 하나둘 비는 듯. 의심이 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범인은 언제나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법. 화장실에 간다고 방에서 나간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던 어느 날,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남편을 찾았다. 역시나

남편은 베란다에 서 있었다. 우두커니 서 있는 뒷모습이었지만 오물 오물 감말랭이를 씹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듯해서 웃음이 새어 나왔다. 바로 달려가서 “잡았다~ 내 말랭이 도둑!”이라고 할까도 싶었지만 남편 자존심이 상할까 살금살금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대신 며칠 후 나는 남편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감말랭이가 아주 맛있게 말랐어. 당신도 좀 줄까?”

“아니! 됐어. 당신이 그렇게나 무섭게 먹지 말라고 소리를 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

“진짜, 후회 안 하지? 그럼 나 애들 다 준다?”

“뭐 주든가 말든가.”

끝까지 큰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마누라 몰래 먹는 게 더 맛있었을까? 그 후로도 두 개 세 개 말랭이는 매일 조금씩 사라졌다.

이제는 떠난 사람. 이제는 나 혼자 먹는 굴 앞에서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우리 남편, 굴 참 좋아했는데…’

그때 우리 형편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우리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맘껏 먹게 넉넉하게 샀을 텐데 마음이 짠하다. 자존심 셨던 우리 남편 식탁에 감말랭이 슬며시 몇 개 올려줄 걸 후회가 된다. 순진하고 착했던 우리 남편 오늘도 생각이 난다.

사랑탐구생활

아들의 실연

권선영 | 대구광역시 북구

벌써 일주일째 저녁 시간만 되면 아들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아들 어디야?>

<동네!>

<오늘은 누구랑 마시나?>

<친구!>

최근에 실연당한 아들의 방황은 30년 전 내 모습까지 추억하게 만든다. 그래, 많이 힘들겠지. 스무 살에 만나 거의 오 년을 만났으니 네 인생의 첫 시련이자 아픔일 게다.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 시절 내가 그랬듯 지금 아들, 너의 세상은 모든 게 희색빛이겠지. 노래 가사는 또 왜 다 그렇게 나를 위로하려고 쓰인 것 같을까? 싶을 게다. 착하고 잘 생긴 울 아들을 왜 이렇게 맘 아프게 하냐고 고슴도치 엄마 같은 말



을 차마 아들 여자친구에게 할 수가 없다. 딸이 없는 내게 아들의 여자친구는 너무 귀엽고 예뻤다. 나 역시 예쁜 딸이 생겼다는 착각으로 오년을 내 아들 못지않게 아꼈던 아이. 그러니 도저히 팔이 안으로만 굽을 수가 없다. 만나온 시간과 사랑의 깊이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세월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확실히 힘을 가진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첫날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노무 시끼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왔다. 몇 년 전, 암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난 내게 아무리 힘들고 철이 덜 든 자식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민머리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사진을 아들에게 휴대폰으로 보내며 <엄마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너 땜에 살고 싶었는데 네 녀석은 헤어진 여자친구만 보이고 엄마는 보이지 않는 거니?>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래도 맘속 한구석이 여전히 너무 시렸다. 아무리 부모 마음 같은 자식이 없다지만 나도 올 엄마한테 저랬던 적이 웬지 있었던 것 같아 한참을 나만의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언제나 내겐 비밀이 없고 살가운 아들이었는데 요즘 내내 웃음을 잃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 낯설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어내야 하는 세상인데 저렇게 나약한 녀석을 어찌나 싶다가도 딱딱한 돌멩이 같은 가슴이 아니라 사랑에 아파할 줄 아는 두부같이 말랑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그래야 살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아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 지금 네가 겪는 건 인생이란 바다에 작은 조약돌 하나 던져진 거란다. 앞으로 그 바다엔 커다란 바윗돌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거센 비바람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올 수도 있어.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은 되지 않길 엄마는 간절히 바란다. 바다가 항상 조용하고 잔잔할 수만은 없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쯤 이제 너도 알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육군 병장 군필 울 아들! 매일 매일 조금씩 너의 맘속이 잔잔해지길.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곳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무사히 항해하길! 엄마는 오늘도 바라본다. 사랑한다~ 울 아들~.

사랑탐구생활

나의 산타

박영순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남편과 한 지붕 아래 산 세월이 어느새 강산 네 번을 바꾸고 있다. 다른 남자들과 연애 한 번 못 하고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청춘을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환상 아닌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놈이 돈이 뭔지. 우린 신혼여행은 꿈도 못 꾸고 결혼식만 겨우 올렸다. 경운기에 필요한 살림 도구 몇 개를 본가에서 싣고 달리면서 남편은 많은 생각이 교차되어 눈물을 흘리며 논두렁을 달렸다고 한다. 울면서 다짐했다고 한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아!’

남편은 늘 내게 하는 말이 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만 믿고 내 발자국만 따라와. 당신은 내가 책임져.”

꿈이 현실이 되든 안 되든 남편은 저 꼭대기 위에 깃발을 꽂아놓고



그 깃발을 향해 달린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남편에게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는 듯하다.

산타 같은 남편의 첫 번째 깃발은 결혼식 날이었다.

“10년 후에 꼭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자.”

우리 부부는 결혼기념일, 생일 같은 날을 그리 챙기지 않는다. 원래 ‘로맨틱’ 이런 거랑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평소에 잘하자’라는 게 우리 부부만의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 10년 내내 두 아이 키우면서 결혼기념일 같은 건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신혼여행 가자! 짐 싸라.”

“어머 진짜? 드디어 나도 비행기 타보는 거야?”

신나있던 내게 남편은 배 타고 부산으로 가자 했다. 더운 여름날, 뱃멀미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 그때의 추억이 고스란히 앨범 속에서 웃고 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엔 날씨가 안 좋아서 뱃길이 막히는 바람에 내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도 탔다. 요즘도 신혼여행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는 형편이 안 좋아서, 미안했다” 남편은 변명하고 나는 구박하지만 실은 좋았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주어서 지켜주어서.

남편의 두 번째 깃발은 집이었다.

“내가 당신 그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 마련해줄게.”

그리고 그 깃발을 향해 열심히 달려 도착한 곳. 그곳이 지금 우리가 20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이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작은 정원에 사계절 소나무들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다. 집이 완성되기도 전, 사라진 업자 때문에 남편은 직장에 한 달 휴가를 내고 몸고생 맘고생 하며 집을 완성했었다. 네 식구의 희로애락이 묻어 있는 등지에서 두 딸은 결혼해 떠나고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아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는 중.

세 번째 깃발은 나의 두 발이 되어 어디든 데려다주는 나의 애마다. 작은 차를 타고 다니던 내게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가 당신 차 업그레이드시켜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남편 말에 나는 반신반의하며 잔소리를 했었다.

“아니 내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통 불편한 애들 텔다 주고 텔고 오는데 뭔 큰 차가 필요해요?”

하지만 남편은 원래 아내 말을 듣지 않는 편! 설마 했던 남편이 사고를 쳤다.

“당신, 기대해! 당신 환갑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환갑이 오기 훨씬 전부터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했

던 남편. 그때마다 나는 “나는 현금 좋아해. 알지? 뭔지 몰라도 이번에는 나랑 꼭 의논하고 결정해요. 꼭”이라고 수십 번 얘기했다.

그리고 지난 달 내 환갑이었다. 거실에 들어가니 방바닥 가득 펼쳐져 있는 현수막. 쑥스럽지만 현수막에 있는 그대로 옮겨본다.

‘은화 은정이 엄마! 당신의 61세 환갑을 축하합니다! 여보! 내 두 딸을 건강하게 낳아 줘서 감사해요! 나하고 산지 어언 40년~ 남은 생, 내가 확실히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만 믿어! 나의 태양~ 나의 전부인 당신에게 이 장미꽃 61송이와 그랜다이저를 바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입고 있던 외투 속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말했다.

“당신, 감동 받았지? 근데 아직 일러. 내가 말이야 원래는 각 그랜다이저를 딱 뽑아서 우리 집 마당에 세워 놓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번엔 제발 상의하라고! 당신 좋아하는 현금으로 달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엔 은행으로 갔지. 당신 말 들으려고. 은행에 가서 가방을 딱 내밀면서 “여기, 통장 전액 현금으로 좀 채워주쇼” 했는데 아! 글쎄 그 직원이 안 된다는 거야. 나를 수상한 눈빛으로 요렇게 보면서~”

“전액을요? 현금으로요? 그것도 이 가방에요? 고객님, 그냥 이체하시죠?”

“진짜 그랬겠다. 요즘 시대에 누가 돈 찾는다고 가방을 가져가? 이체하면 되지. 은행 직원이 당신 대한민국 사람 맞나 의심했겠다.”

“아, 그러니까 말이야. 현금으로는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표로 그것도 아주 특별하고 예쁜 봉투에 담아달라고 해서 여기 속주머니에 이렇게 딱, 어라? 여기 속주머니에 꼭꼭 넣어왔는데 임? 이게 어디 갔나? 이게 어디 갔어?”

순간, 남편 얼굴색이 노랗게 변했다. 남편이 은행에서 받아왔다는 수표 봉투, 통장 전액이 사라진 것이다. 그 길로 경찰서에 다녀오고 은행에 분실신고하고 여기저기 찾아 헤맸지만 봉투는 나오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자.”

남편을 달래며 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은 굳이 그 새벽에 회사에 거래처까지 본인이 다녔던 동선을 죄다 훑고 다녔다. 어디에 흘렸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섬주섬 아침을 차리려고 부엌으로 나오는데 방에서 이불을 개던 남편의 비명이 질렀다.

“여보! 여보! 찾았어! 찾았다고!”

어이없게도 수표 봉투는 이불을 개고 보니 안방 방바닥에 있었다고 한다. 이유는 미스터리, 그렇게 나의 환갑날은 두고두고 환장할 추억을 남겼다.

살면서 남편은 자신이 한 말에 꼭 책임을 지려 했다. 무심히 내뱉는 말에도 다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던 남편의 말들이 모두 산타의 선물처럼 돌아오는 걸 보면서 나는 감동받았고 처음엔 다소 허세처럼 들렸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와”라는 남편의 말을 점점 더 기다리게 됐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오늘도 나는 남편의 마술 같은 말이 듣고 싶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만 믿어.”

이 말을 들으면 지쳤던 맘에 절로 힘이 솟는다.

“나의 산타, 고맙습니다. 근데 여보~ 앞으로 돈은 가지고 다니지 마. 이제하면 돼. 두 번은 놀라게 하지 마셔.”

앞으로 우리에게 몇 개의 깃발이 더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주말엔 투유

행복하우스

이진영 |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만나서 반가워! 친정 부모님의 새로운 생활을 책임져줄 부모님의 따뜻한 행복하우스야!

칠순이 되신 부모님께서는 몸이 약해지셔서 더 이상 시골 생활이 벼거우실 것 같아 친정 언니와 함께 합동작전으로 널 찾아냈지. 두 분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찾아낸 너. 너를 찾기 위해 언니와 나는 추운 12월에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유롭지 않은 금액으로 과연 적당한 집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한가득이었던단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만난 20여 평의 너. 비록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부모님이 생활하시기 편리한 읍내 한가운데 깔끔하게 짹 수리가 된 모습으로 넌 우리를 반겨주었지. 그때부터 우린 너를 '행복하우스'로 부르기로 마음먹었어.

그동안 딸들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서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게 어떻겠느냐 아무리 말씀드려도 엄두를 못 내시던 부모님이셨어. 그런데 우리가 너를 찾아내고 처음 보여드린 날,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도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을 보이셨지. 나이가 들어 새로운 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긴장, 그러면서도 딸들과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득해 보이는 행복하우스, 너의 모습에 기대감이 들면서 여러 마음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표정이셨어. 하지만 언니와 나는 알고 있었지. 작지만 아득한 행복하우스, 너를 보면 볼수록 부모님 얼굴엔 걱정이 줄고 웃음이 많아질 거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 인터넷과 전화 이전 설치를 신청하고 우편물 받을 주소 등을 일일이 옮기고 이삿짐센터를 섭외하고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소소한 집기들을 구입하고 전등을 갈고 하는 모든 일에서 말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부모님은 슈퍼맨처럼 모든 걸 척척 해내셨거든? 근데 얼마 전 부모님은 “인터넷이랑 전화 이전 설치 때문에 상담원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누르라고 하는 게 많은지 결국은 못 했다” 하시면서 당신 자신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셨어.

전화로 문의하는 일도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구입하는 일도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 없어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우리는 그런 부모님께 더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너에게로 이사한 날, 우리 딸과 사위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모두 출동해서 집을 청소하고 이삿짐을 정리해드리고 서류 업무를 도와드리고 너의 주변에 있는 마트와 은행, 목욕탕과 소소한 생활용품 사는 곳을 모두



함께 가보고 간단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식당까지 찾아드리며 최선을 다해 낯선 동네에서 쓸쓸하시지 않도록 노력했지.

그리고 그 후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친정 언니와 나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행복하우스 너를 꾸미고 있어. 부모님께서 편히 지내시도록 말이야.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공기정화식물을 잘 배치하고 수납공간을 정리하고 커튼과 시계 등을 달고 나니 네가 더 아늑하고 사랑스러운 행복하우스로 변했지 뭐야.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선물해준 네가 정말 고마워.

처음 걱정과는 다르게 부모님도 이제는 “어쩜 이렇게 편하고 안락하다니!” 하시면서 좋아하셔서 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시며 사신 모든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으로 더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만 하실 수 있도록 집아~ 우리 부모님을 잘 부탁해! 우리도 너한테 잘할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렇게 나이들 수 있다면
좋겠다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꽃 가게마다 작은 화분들을 가득가득 내놓아서 그냥 지나치기 아까울 정도다. 잠시 가던 걸음 멈추고 꽃들과 눈을 맞춘다. 우리 집에는 70cm가량 밖으로 튀어나온 창틀이 있어 겨우내 별 바른 곳에서 초록 식물과 작은 다육이들이 잘 자랐다. 이제 밖으로 나갈 때다. 분갈이도 하고, 플라스틱 화분은 자작나무 껍질로 테를 두른 이끼 화분을 사서 사치를 부려 보련다.

전기요금이 심장마비 올 정도의 고액이라서 절약하다 보니 집안에서도 스웨터와 양말은 필수품목이다. 어떤 때는 집안 보다 바깥이 더 따뜻하다. 그래서 4월과 10월의 실내는 외려 더 선득한 감이 있다.

1979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열리는 <신춘편지쇼>가 마감되었다. 올해는 '그 아이'와 '3년'이란 두 가지 글제가 주어졌고

두 가지 중 하나만 골라서 사연을 보내시면 되었다. 어떤 사연들이 올지? 응모하는 이들만큼이나 내 가슴도 두근거린다. 참 힘겨운 3년을 보낸 후 우리 마음의 키는 얼마나 컸을까도 궁금하다.

<신춘편지쇼> 마감도 있지만 라디오도 봄 개편을 맞는다. 봄, 가을 일 년에 두 번 담당 PD들도 바뀐다. 식구들이 바뀌면 유리창 안과 밖이 서로 낯설고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낯가림이 심한 나는 변화보다는 머��이 좋은데 그냥 편하기 때문이다.

사실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양손의 떡은 불가능하다. 연예 오락 프로 녹화나 지방 공연, 행사 등을 거의 안 했다. 어떤 이들은 바보 같다, 웃긴다고 할지 모르나 지방 저녁 행사 마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 씹고 나면 잠도 달아나고 애써 눈 붙인 채 두세 시간 자고 여성시대 출근하면 어이쿠~ 발음이 새네, 단어가 씹히네, 피곤한 티는 어쩔 수 없다. 해서 내 콘서트조차 거절할 때도 많았다.

과도한 일정과 피곤함이 버거워서 차라리 그냥 아침 방송의 맑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었다. 이런 짹사랑을 봤나? 어찌 보면 내 별명대로 '양미련 여사'의 우직함과 미련함 때문이다. 난

자리 지켜 주는 변함없는 누군가가 되고 싶기도 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화창하거나, 바람이 불거나 간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군가 마음 둘 데 없어 헛헛해 할 때 여전히 이 사람이 그대로 있었네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며칠 전 송창식 선배의 희수연이 있었다. 누구보다 일찍 도착해 낯익은 얼굴을 찾았는데 늘 변함없이 따뜻하고 건강하신 성공회 김성수 대주교님이 계셔서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울 엄마와 갑장이신 어른! 지팡이를 가리키며 “난 뭐 이거 하나만 있음 어디든지 간다”고 하셨다. 1950년대 가회동 31번지에 대주교님이 어머님과 사셨던 그 댁에 우리 식구가 머문 적이 있었다. 희경이 태어나기 전 우리 집 수리하는 동안 거기 살았었다.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강화도 땅에 오래전부터 해 오신 장애 아들을 위한 시설을 짓고, 농사도 지으며 그들과 함께 사신다.

내 마음속의 진정한 어르신을 뵙고 나니 노년이 저리도 해맑고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생겼다. 별다른 말씀 없이 일상사를 나누어도 마음이 좋다. 그분의 좋은 기운을 받는다. 그렇게 나이를 수만 있다면 좋겠다.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울 엄마가 달라졌어요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어느 때부터인가 어머니께 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졌다. 완전히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새로운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그리 어렵지 않은 단어들의 뜻을 되묻는 일이 잣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어머니의 은행 통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셔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알고 보니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못 찾으셨던 것이다. 형이 가서 해결해드리기 전까지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고, 설사 통장이 없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남이 함부로 빼가진 못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나 또한 안타까웠다. 송금하지 말고 직접 대전에 가서 얼굴 뵙고 드릴 결 후회하기도 했다.

나의 어머니는 참 생활력 강하고 활동적인 분이었다. 십 년 전만 해도 산악회, 노래교실 등 외부 활동도 참 활발히 하셨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지셨다. 수술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엄마의 외부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물리적 힘듦에 더해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는 자존심도 한몫한 듯하다. 가족 외

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싫어하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엄마의 총기가 예전 같지 않아지셨다. 금슬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는 다룰 상대라도 있었는데, 아버지마저 떠나신 후로는 하루 종일 실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적지 않았다.

통장 사건 이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자주 찾아뵐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어머니의 깜박깜박함을 줄여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얻어낸 나름의 방법은 바로 짧게라도 여러 사람이 번갈아 전화 드리는 것. 자주 전화하는 사람의 고정적인 패턴의 전화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번갈아 전화함으로써 어머니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 일단 나부터 짧게라도 매일 전화 드리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도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짬짬이 대전에 전화드릴 것을 부탁했다. 주말마다 대전에 내려가는 형에게는 평일에도 전화로 동참해줄 것을 종용했다.

통장 사건이 있은 지 보름 정도가 지났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엄마에게 전화 드리는지 체크해 보진 않았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보름 중에 13일을 전화 드렸다. 물론 한 번의 통화에 긴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다. 대신 시간대를 다양하게 해서 똑같은 패턴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했다.

아침 전화는 “어머니이~잉, 막내아들이요! 일어나셨어?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디… 이제 날이 좀 풀렸으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살살

나가셔서 바람도 좀 쐬시고 하세용~ 이제 라디오 시작할 시간이라 끊습니다요. 내일 또 전화 드릴게!”

점심에 전화해서는 “~ 차로 이동 중이에요 어머니잉. 뭘 하러 가는가 하면 티브이 프로그램에 아들 목소리를 입히러 가요. 모습은 안 나오지만 목소리로 설명해주는 거~ 점심 식사하셔야지요. 뭐 드시게? 라면!? 왜 밥을 드시지? 그려요. 원하시는 것을 맛있게 드셔요. 또 전화할게용. 짧게라도 자주 합시당. 엥? 고맙다고!? 당연한 거지 뭐가 고마워요. 안녕!”

그리고 저녁 여덟 시경에 통화를 하게 되면 “~드라마 뭐 보고 계셔용? 아… 그 드라마 재미있지. 연기들 엄청 잘하더라고. 어머니는 거기 나오는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좋으셔? 아아… 나도 그 배우 좋아합니다. 특히 이번 드라마에서 참 착하게 나와. 배역 잘 맡았어. 그래요 마저 보시고 또 통화해요. 사랑해용.”

물론 짧은 전화 통화로 어머니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보름 전보다 확실히 좋아지셨다는 것이다. 진즉에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통화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상황이 허락되면 한 이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내볼 생각이다. 무릎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동네 마트도 가보고,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맛집에 들러 뜨끈한 음식도 먹고, 드라마도 함께 보고, 주무시기 전에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어쩌면 조만간 이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사랑해요.

쉬운 경영은 없지만 쉬운 뱅킹은 있었습니다.



기업에 담긴 당신의 진심을 일기에
6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기업금융의 길을 걸어갑니다

IBK기업뱅킹



고객별 맞춤으로 **쉽게!**

자산관리서비스, 알림 서비스 등
고객 유형별로 맞춰 편리한 이용



비대면으로 **빠르게!**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 외환 업무와
개인 및 법인 카드 발급까지 가능



자금통제로 **안전하게!**

다단계 결제,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라인
아간/주말 이용시간을 안전하게 제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651호(2023.02.13) [유효기간 : 2024.02.12]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IBK 기업은행

이 세상에 작은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기술이든 실패에 울고,

보란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